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火)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第六十八議會 衆議院遂解散! 二十一日午後三時十分에 貴族院도 同時停會

【東京至急電話電通】二十一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開會된 衆議院에서 岡田首相、廣田外相、高橋藏相의 施政、外交、財政方針各演說이 終了된 刹那 白根翰長이 捧持한 解散詔書는 濱田議長에게 傳達되어 第六十八議會는 議員의 萬歲聲裡에 三時十分에 解散되고 同時에 貴族院은 停會되엇다

不信任案全文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院內外總務會에서 總括的不信任案을 二十一日 衆議院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全文은 如左하다

內閣不信任案決議案

衆議院은 現內閣을 信任치안는다 大體 國體의 本義는 炳如日月하고 國民의 信念은 絶對로 萬古不渝이다 그런데 天皇機關說排擊問題가 起하자 本院의 第六十七議會에서 全會一致機關說排擊을 決議하야 速히 政府에 善處를 要望하엿다 爾來 約一年 現內閣의 信念이 甚히 薄弱하야 이 排擊을 斷行할 誠意가업고 부질업시 聲明을 再三發表하엿스나 이 實行에 當해서는 逡巡遲疑 事를 模稜內에 推移하야 國民의 耳目을 멀리하려고하엿다 적어도 國體에 關한 絶對問題를 區區한 政治交涉으로 瞎遷就移함은 斷然 國民의 許치안는바이다 이것이 本院이 現內閣을 信任치안는 理由의 第一이다 思惟컨대 內外의 情勢는 國防의 充實과 産業의 發展보담 急務인것은업다 그런데 現內閣의 政策을 檢討하건대 안으로 國防産業의 調和를 缺하고 農村中小商工業의 對策을 失하야 世道人心의 不安을 釀하고 박그로 對中政策의 機宜를 엇지못하며 經濟外交에 緊急의 計를 講究하지안코 부질업시 當面을 瀰縫하야 萬事가 如意終焉한것가티 여기며 內閣審議會를 設置하엿다하나 于今에 何等 이때에 그使命은 實로 重大하다 無經綸無國策의 現內閣이 到底히 그重任에 堪耐치 못함은 全天下의 輿論이다 이것이 本院이 現內閣을 信任치 못하는理由의 第二이다 大體立憲治下에 잇서서 擧國一致의 實을 擧하려면 國民을 基礎로한 政黨에 立脚치안흘수업다 그런데 現內閣은 擧國一致를 標榜하면서 도로혀 政黨內部 成績으로서 볼것이업고 도로혀 責任回避의 具에 提供되고잇슬뿐이다 方今 世界平和의 維保를 强調하고 軍縮會議를 脫退하야 東亞安定의 大勢를 堅持하고 世界에 臨할에 魔手를 뻐처 暗暗裡에 이것을 擾亂하야 겨우 一日의 小康에 安堵하고잇다 이것이 擬裝的擧國一致가 아니고 무엇이랴 政黨은 主義와 政策을 標榜하고 이로써 國民의 向背를 定하야 責任政治를 實行한다 그런데 政策定見을 가지지아니한 烏合의衆가 猝然集合하야 猥濫히 擧國一致를 稱함과 如한것은 正히 僭越의 甚한者이다 이것이 本院이 現內閣을 信任치안는理由의 第三이다 國體觀念에 關하야 信念을 缺하야 機關說排擊에 對하야 誠意가업고 內外의 治政이 全혀 그當을 失하고 부질업시 擧國一致를 擬裝하야 責任政治를 沒濟하고 그나마 閣僚가 時局의 認識을 달리하야 重大案件에 際하야 이것을暴露하고잇다 弱體微力 到底히 現下의 重大時局을 擔當할能力이업다 따라서 現內閣은速히 處決하라 右決議함

英國皇帝崩御 웰스公殿下皇統御繼承

【倫敦廿日發電通至急報】英國皇帝는 二十日夜半 마츰내 崩御하시엇다는 旨를 非公式으로 發表하시엇다

【倫敦廿一日發電通至急報】프린스·오브·웰일스(英皇太子의 御稱號)公殿下께서는 조지五世陛下의 御崩御에 依하야 即時 御踐祚하사 大英帝國의 皇統을 御繼承하옵시엇다 新陛下께옵서는 御年四十二歲로 御獨身이시다

【倫敦廿一日發電通】英國政府는 廿一日의 閣議에서 全國民에게 公式服喪令을 公表하기로되엇는데 그期間은 아직公表되지안핫스나 前例에 依하면 宮廷及 王室은 六個月、一個年、官公署及 軍隊는 六個月、一般國民은 一週間內外이다

宮中喪發表

【東京電話同盟】宮中에서는 英國皇帝조지五世陛下崩御의 報를 들으시옵고 拜聞되는데 매우 御哀悼하옵시사 外務省을 通하야 公報到着即時로 同國皇室에 對하야 御悼問의 御弔電을 보내시는同時에 宮中喪을 發表하옵실터이라고 承聞된다

理由書 本決議案과 全文에 明白함으로 이를 略함

軍縮全權威謝決議文

【東京電話電通】衆議院의 倫敦軍縮全權에 對한 感謝決議文은 如左하다

衆議院은 倫敦海軍縮會議에서 日本全權이 公正安當한不威不侵略의 根本精神을 中外에 闡明한努力에 對하야 深甚한 謝意를表함

日獨攻守同盟 一月四日調印? 英모닝포스트紙報道

【倫敦二十日發同盟】모닝포스트紙 伯林特派員은 二十日의 紙上에서 日獨兩國政府間에 軍事同盟이 成立되엇다는旨를 報道하야 獨逸政府의 再軍備에 關聯하야 如左히 報道하얏다 獨逸政界의 確實한側에서 傳하는바에 依하면 一月四日 日獨兩國政府間에 軍事協定이 調印되엇다고한다 同協定에 依하면 日獨兩國中 어느一國이 第三國의 攻擊을 바들 境遇에는 相對協約國은 援助를 與할義務를 負할것은勿論 第三國은 蘇聯邦을 意味하는것임은 말할것도 업다 協定調印에 際하야 東京駐箚 獨逸大使 푼·될크젠氏와 陸軍武官이 獨逸政府를 代表하엿는지 그與否의 詳細한것은 아직 不明이다 獨逸政府가 過去一個年國力을 傾倒하야 軍備擴充에 邁進하는데 그結果 軍事的發展의 擴充이 迅速完全히 實現하게 되엿다 今後 一年後에는 獨逸政府는 그發達로써 自國의 外交的要求를 支持하야 經濟制裁도 無視할수잇게 될것이다 獨逸空軍의 能力은 數는 不問하고 量에잇서서는 이미 英國空軍과 均等한 勢力에 到達하엿다 特히 長距離爆擊機의 迅速的 進步는 顯著한바가 잇다 獨逸全面의 東歐洲에 뚜렷한 目標가 업는 것에 想到한다면 西及中部歐洲에 重大不安을 興할것이다 州하든 經濟相의 루베돌프將軍의 主張에 따라 戰事에 至急對策이 되도록 平時에 工業原料를可及的自國內에서 調達할方針으로 空軍에도 國際礦炭으로부터 採出하는 重油를 使用하고잇다 또 科學者는 調査改善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다 有力한 空軍 五十五萬의陸軍 英國海軍의 三割五分에 對한 海軍은 別로 두려워할것이 업스나 두려워할것은 獨逸政府가 全國民에 對하야 戰事이 絶對로 不可避란것과 또는 物質的으로 有利한것일뿐아니라 積極的으로 偉貴한것이것가티 생각하도록 訓練하고잇는그것이다

日獨援助條約說 獨政府正式否定

【伯林二十日發同盟】日獨兩國政府間에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엿다는 모닝포스트紙의 報道에 關하야 獨逸外務當局은 二十日 如左히 公式으로 否定하엿다 모닝포스트紙는 日獨兩國政府間에 相互援助條約이 一月 四日 東京에서 調印되엇다는旨를 報道하엿는데 右報道는 事實이 全혀 無根이다

最新式爆擊機 百十四臺를注文 廿日米國海軍省에서

【倫敦二十日發電通】米國海軍省은 二十日 다그라스航空會社에 對하야 空雷發射裝置附最新式單葉爆擊機 百十四臺의 建造를請負케하엿다 工費는 合計三百六十二萬六千弗이다

中國의滿洲國承認이 極東政策의根本 外相外交方針演說

【東京電話電通】一、먼저 日滿中三國의 關係에 對하야 보건대 그關係는 漸次 改善되는中인데 아직 常道에 復歸하엿다고는 할수업다 따라서 이三國間의 關係를 다시 一步進하야 이것을 完全히 平常化하야 東亞의 安定의 基礎를 一層鞏固케할 必要를 痛感한다 玆에 政府는 中方針을 樹立하엿다 이 方針의 根本的 調整에 關한것으로는 左의 三趣旨로되엿다

1、그 第一點은 日中兩國間에 即 中國은 如何한 形式으로든지 이때까지와 가튼 非友好的行爲及 政策을 採擇치말고 또 單히 消極的으로 如斯한 行爲及 政策을 採擇치안흘뿐아니라 日中兩國은 一步進하야 親善提携의 實을 示하고저 積極的으로 協力을 行하도록 하자는 趣旨이다 萬若 中國이 日本에 對하야 非友誼的行動을 取하거나 또는 부질업시 第三國을 利用하는 常套手段을 써서 東亞의 安全에 逆行함과 如한일이 잇다면 右는 참으로 遺憾이다 그러나 中國에서 이 點에 關하야 十分 覺醒해오는데잇서서는 日本은 中國의 發展을 爲하야 有形無形의 支援을 할 用意가 잇슴은 勿論이다

2、日本政府는 처음 第六十七議會에서 隣邦에 對한 不脅威不侵略의 根本政策을 宣明하고 또 그機會를 利用하야 兩國의 國交를 常道에 復歸케하야 兩國利害調整을 進捗케하려고 努力하엿는데 이點에 關해서는 遺憾이나마 今日까지 아직 充分한 成果를 보지못한 狀態이다 大體 日中間의 關係를 完全히 常道에 復歸케하기爲해서는 中國과 滿洲國과의 關係도 常軌에 復歸시킬 必要가 잇슴은 當然하다 그런데 中國側은아직 北中과 接壤해잇는 滿洲國을 承認하지아니한 事實에 加하야 北中의 오랜 地方的 特殊傳統을 無視하엿기때문에 北中에서는 一時 相當한不安의 空氣를 보게되엇던바 이도最近에는 河北、察哈爾二省의 冀察政務委員會의 設置로 形勢는 크게 緩和되려는이다 뿐아니라 日滿中三國의 關係를完全히 調整하기爲해서는 爲先 中國이 滿洲國의 存立을 承認하야 이와 國交를 樹立하고 一步進하야 相互利害關係를 調和해나가지 안흐면 根本的으로는 解決할수가 업다 따라서 一刻도 速히 그時期가 到來하기를 바라는바인데 그때까지의 期間中에도 北中에서 어떠한 日滿中 三國의 關係를 惡化하지안흘만한 手段方法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는 趣旨이다

3、中國이 今日直面한 困難의 最大한者는 共産主義運動이다 그리고 東亞의 不安定은 赤化運動中에 乘할 點이 잇서서 中國과 如한 나라는 그 邊境地域은 勿論 內部의 社會組織에 잇서서도 特히 그 脅威를 밧고 잇다 大體 赤化運動의 危險은 東亞에 局限된것은 아니나 東亞에서는 今日 特히 그旺盛한 活躍을 보고 잇는 모양이다 이에 吾人은 東亞의 安定 아니、世界의 安定을 爲하야 이東亞의 赤化運動을 防止하고 中國을 그危險으로부터 救하게하는것은 單히 日滿 中國뿐아니라 各國共通의 重大事가 아니면 안된다 이것이 今回 決定한方針의 第三點이다 即 日本은 赤化防止를爲하야 中國과 여러가지 協力을 行하고십다는 趣旨이다

一、日滿蘇三國의 平和親善確立에 日本은 努力해왓다 北鐵買收交涉의 成立은 三國에 亘한 多年의 障礙를 排除할수잇섯다 그러나 蘇聯이 그邊境植民地인 東部西伯利亞에 過大한 軍備를 整頓하고잇슴으로 滿洲國民은 勿論 日本國民에게 對하야 多大한 刺戟을 與하고잇다 이 點에 關해서는 機會잇는때마다 蘇聯當局의 考慮를 求하고잇는터이다

一、客年十二月九日以來 倫敦에서 開催된 海軍軍縮會議는 日本政府의 크게重要視해온바인데 今回 日本全權은 畢竟同會議로부터 脫退하게되엇슴은 周知하는바와갓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軍縮條約의 有無如何에 不拘코 不脅威不侵略의 精神을 尊重하는者로서 何等軍備競爭을 誘發하려고함과 如한 意思는업고 또世界平和를 爲하야 軍縮達成에 協力하려는素志에 何等變更이업는것은勿論이다 (以下略)

人事·集會

▲古良喜重氏(大邱稅務監督局稅務部長)轉任人事次來社

佛國라발內閣 廿二日總辭職?

【巴里二十日發同盟】라발首相은 二十一日深更 쥬네브로부터 歸還하야 二十二日 緊急國務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會議席上에서 먼저 에리오無任所相이 正式辭表를 提出하고 다음 急進社會黨出身閣僚도 連袂辭職할 意向을 表明할터인바 急進社會黨의 支持를 喪失한以上 內閣은 國務를 遂行할수업서 即時 엘리제宮에 루브랑大統領을 訪問하고 總辭職을奏請할것으로보인다

八面鋒

長津水電의 逆流水가 附近住民의 눈에서 逆流水를 자어내인다

◇비도아니오고 눈도아니오는冬旱에 洪水亂을 이르킴도 기막힌事情이어니、

◇이것이 野口王國의 첫善德이라하면 진저리나는일이아닌가。

◇解散보다도 選擧가 急한눈치、政府도準備、政黨도準備。

◇民衆의生活을 爲하야 이러케 서둘러보힘이 單一次라도 잇섯든가。

◇政友會長老도 政黨內閣은無望이라하고 民政黨領袖도 擧國內閣을 좀더繼續한다하고。

◇그러면、무엇때문에부르는 解散인가、무엇때문에떠드는 內閣不信任인가。

英案을參考資料로 建艦通告案作成中 四個國會議小委員會

【倫敦二十日發電通】四個國會議專門家 小委員會는 二十日午前十時三十分 클라렌스·하우스에 會合하야、建艦計畫通告案에關한 協定案作成에 着手하엿다 그동안 第一委員會議長 몬셀英海相은 過去十八個月間 豫備會商에서 實的制限에關하야 討議되고 英國側에서 實際的提案으로 認定한 部分을 摘錄한 메모란덤을 參考資料로 各國에 配布하얏다 英國側은 明日의 第一委員會의 實的制限問題討議에·當하야 該메모란덤을 協議의 基礎로할 意向이라고보인다

二月二十日 總選擧執行乎

【東京電話同盟】衆議院은 드듸어 今二十一日의 議會再開劈頭에 解散하기로되엇는데 解散이 되는境遇에 岡田首相以下 各閣僚는 即時 首相官邸에 撤歸하야 緊急臨時閣議를 開하고 選擧期日을 決定하야 岡田首相은 即日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二十二日의 官報號外로서 總選擧의 執行期日을 公布할터이다 그런데 普選法實施以來의 前三回의 解散選擧는 選擧法第十八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하야『解散日로부터 三十日以內에 總選擧를 行함』이라는 原則을 適用하야 解散日의 翌日부터 起算하야 三十日入재에 執行되엇고 後藤內相을 爲始하야 政府部內의 意見도 大體 前回의 例를 본받기로 一致되엇스므로 今回는 二十一日解散이되면 翌日부터 起算하야 三十日入재인 來二月二十日로決定될것은確定的이라고보인다

루大統領의金看板 뉴띨政策의破綻 ②

韓普容

◇NRA의 目標는 우에서도 暫間 말한배 잇거니와 그特徵을

要約指摘 하면

一、賃金引上에依한 購買力의 增進

二、物價引上에依한 企業利潤의 增加

三、勞働者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의 確認

四、勞働時間 短縮에依한 失業者의 根絶

等으로 볼수잇는데 이 目的을 達하기爲하야 産業分野에 잇서서 個人主義를 排擊하고 統制主義를 鼓吹하는 一方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한 코-드(規約)는 政府의 法律的 强制力에 依치안코、政府의 奬勵와 輿論喚起에 依한 社會的壓迫下에『自由契約』의 形式으로 實現하게되엿다。

◇이리하야 NRA運動이 한番 始作되자 루즈벨트政府의 積極的 宣傳活動이 經濟的 危機에 直面하엿던 當時 全國民의 非常時的氣分과 呼應하야 NRA코-드參加는 一種의

愛國運動 으로 化하고 말엇다

靑鷲(靑鷲)마아크는 全米를 風靡하야 最初의 一九三三年八月一日에 이미 七十萬의 參加者를 어덧고 違憲判決直前 即 昨年五月初에는 코-드數로 六百、全米産業從業員 二千四百萬人中 九十五%는 NRA統制下에 잇게 되엿다。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NRA出現으로 米洲社會가 얼마나 떠들게되엿든가를 容易히 推測할수잇거니와 NRA 實施의結果 그 目標하엿던 物價引上、産業復興、賃金引上、失業者減少에 各各 어느程度의 成功을 보게되엿스므로 NRA는 一時아메리카天地를

凱旋騷動 ◇으로 震動하엿다。

그러나 NRA에 對하야는 讚揚的 凱旋歌뿐이아니엿다。讚揚이 잇는反面에 不平、反對의소리도 相當히 우렁차게 들리게 되엿다。그리하야 이 反對氣勢는 날이갈사록 此에 正比例하야 强烈하여젓다。即 NRA는 大産業의 保護만을 企圖한다하야 中小商工業側의 不平이잇고 勞資相剋을 惹起하게되다하야 資本家側의 不平이잇고 物價騰貴에 對한 價格協定을 排擊하는 消費者側의 不平이잇고 團體交涉權은 認定하여노코 實際에잇서서는 資本家側의 團體交涉權을 默認하여오는 事實과 物價騰貴에 對한 勞賃引上의 不均衡으로

生活困難 은 보다더 深刻하여젓다는 勞働者側의 不平이잇섯다。

◇여게서 特히 注目되는點은 NRA에 對한 不平이 어느 一部또는 一階級에서만 이러나는것이아니고 모든 方面으로부터 總攻擊的 氣勢를 보이게되엿다는 點이다。이것은 NRA의 生命을 보다더 짧게한 主要原因이 되는同時에 NRA自體가 矛盾의 混合體라는것도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NRA는 各方面으로부터 攻擊을 밧게되엿스나 그中에도 資本家側으로 오는攻擊이 가장 무섭고 威力이잇섯다。루즈벨트 政府는

消費大衆 의不平、勞働者側의不平은 거이 問題삼지 안혓스나 資本家側의 不平만은 無視할수업섯다는것보다도 結局 그들의 猛烈한 反對에 逐着하야 NRA自體의 終焉을 告하게된 것이엿다。

NRA發揚當初로 말하면 經濟恐慌이 絶頂에 到達한때이엿스니만치 政府가 어떠한 手段政策으로든지 破滅된 經濟界를 어느程度까지라도 回生식히는것이 資本階級 全體로보와 有利하엿슬뿐아니라 一旦 NRA運動으로 救國的 愛國運動으로 展開되엿든 以上 그當時에 이것을 反對할수는 업게되엿다。이가튼事情下에 그들이 NRA를 承認하고 NRA와 協力한 結果 그들은 그初期에잇서서 僞善的愛國心은 팔대로팔고 經濟的 利益은 取할대로 取하엿다。

그러나 NRA運動으로 經濟界가 漸次 改善됨에따라 그들의 資本主義的 發展力이 妨害되고잇는 事實을 看破하게되자 資本家側은 一齊히 NRA의 獨裁的統制의

非難攻擊 ◇을 開始하게 되엿다

資本家側의 統制强化에 對한 反對는 即時 效果가 나타나 一九三四年 六月七日 루大統領은『今後 原則으로 各産業規約中에 價格協定을 包含함을 不許한다』는 宣言을 發하야 獨裁統制를 可及的으로 緩和하려는 態度를 示하엿스므로 獨裁强化論者이던 존슨 復興局長은 退却하고 리치버그氏가 後任되야 同年十月十四日

(一) 價格決定、生産統制를 避할것

(二) 舊來의 自由競爭制度를 實行할것

의二條項의 宣言을 發하엿다。그러나 資本家들은 이것으로 NRA反對는 끗치지안핫다。

資本主義 社會에잇서는 資本家가 못하는일이업는법이다。

그들이 NRA를 밉게보고 이것을 粉碎하려는 決心을 가진다면 結局 粉碎하지안코는 마지안흘것이다。그리하야 그들은 果然 이目的을 達하엿다。그리하고 그들이 NRA粉碎에 利用한手段方法은 米國의 傳統的 地方分權思想을 武器로 産業統制는 州政府의 權限이오 聯邦政府의 干涉은 憲法精神에 違反된다는것이엿다。그들은 이것을 理由로 聯邦政府를 相對로 大審院에까지 提訴하엿다。그들의

勢力範圍 內에 잇는 大審院이라 그들의 利益에 背馳되는 判決을 내릴理가 萬無하다。

이리하야 NRA는 昨年五月二十七日 資本家의 威力에 無慘히 粉碎되고 마럿다。

(寫眞은 新代復興局長 존슨將軍과 리치버그氏)

—(續)—

甚한頭痛을낫게하며、頭腦疲勞를恢復식히는 獨特味는다른頭痛藥에서 보는노-シン의長所이다

現代科學은모다 非常한進步。잇다。따라서頭痛藥은 單頭만의防止로서는今日의 完全이라고할수업다。그것은頭痛을과同時에頭腦의 疲勞를回復식히는頭腦가明朗하고 明快하게用이업스면頭痛藥의使命을完成식히는것이라고 할수업다 노-シン은이런目的으로써 頭腦藥인바

一、『頭腦의痛症을낫게하는』 勿論이고、同時에一步나아

一、『頭腦의 疲勞를回復식히』 을갓고잇는것이다

主效 頭痛·頭 頭腦疲勞·頭內 眩暈·心氣倦 宿醉·船車멀미 …胃腸에無害…

價 .30 .50 1.00 2.00 5.00

★全國어던藥店에나잇슴

炎魔如前히 跳躍!
今曉大邱에 大火
店員三名이 燒死
十三戶全燒、損害額十萬圓

【大邱支局電話】이십이일 오전세시에 대구부 본정(本町)일정목 오십팔번지 전호구(全昊求)상점에서 불이나서 때마침 강하게 부러오는 서북풍에 불길은 점점 세를 더욱어더서 삼시간에 이웃 상점에 연소되여 리영조(李永祚) 안종(安鍾)등열두상점이 타버렷다

마츰 사람들이 기피잠든 밤중의 일이엿스므로 전기상점원들중에는 미처 피하지못한 사람도잇서서 리영조상점점원 김돈이(金敦伊)(二三) 강청숙(姜靑淑)(二三) 최상준(崔相俊)(二七) 세명은 그만 불에타죽엇다

손해는 이이호 십삼동이 전소되여 십만원이상에 달하며 원인은 화로불을 부주의한것이라 고한다

부근은 바로 대구경찰서압번잡한 상가이여서 매우혼잡하엿다고 한다

仁川火災에 同情遝至

【仁川】수변래에 처음보는인천의화재는 리재민이 백여명을 내이여 살인적추위를 한데서먹을것도업시 떨고잇는참상이다 이에소관서에서는 우선응급수당으로 유군성(劉君星)씨의 년말동정미백석중에랑식을충당하야주고잇스나 그외의 벌쭐이 가장 어려운형편이라는 소식을 접하자 시내률목리(栗木里)박남칠(朴南七)씨의모친 허해란(許海瀾)여사는 일금 십원을 적으나마 리재민중에 변마한 로인을 주어달나는 동정이 잇섯고 송림리(松林里)최승우(崔承宇)씨의 금 이백원을 합하야 각계의동정금이 답지하는 형편이라는대 일반은 이추위 이변밀에 로모와 젓먹이를 다리고 집업시로숙하는 이백여 리재민을 위하야 만흔 동정이 잇기를 바란다한다

灰燼속의 哀話
産母行方不明

【仁川】이십일오전령시반에 송현리근방에서 이러난 화재는소화전(消火栓)의부족 싸어논나무가리로인하야 화세의 맹렬함에따라마츰내 대화에 이르럿는데 동리리재민 일백구십사명은 대개가 정미소 흥오동장의 직공들이라 림시로 드리설집조차변통할수업는 참상이라 이십일저녁에는 타고나문 부인터에 전남밤을 추어하며 로숙(露宿)할수밧게업슴으로 소관인천서에서는 응급수당으로 부근각집에림시로 무게하엿스나 사십여명가량은 그것조차 엇지못하고 부인창고등에서 철야하는참상이다 그중에가장 눈물겨운 애화하나가 잇다 동오십륙번지 김씨(金氏)(三二)는 화재전일에 녀아를순산한후이라 기력을차리지못하야 불속에서혼수상태에빠저잇는것을 소방수의필사적노력으로 겨우모녀를구조하야겨우정신만을차리게한후피란처로 옴기게하엿는바 약한시간후에병원으로보내고자 전기소방수가그를차젓는바 어대로갓는지행방불명이되고말엇다 이에실색한당국자들은이십일하로동안읍부근각호에 구조되여잇다 하야 차젓스나 가장큰의문을이르키고잇다 한다

裡里市內에 殭屍

【裡里】지난이십일오전다섯시경

義州邑內 華商에 火災

【義州】지난십오일 오후팔시십

"不良二世"二萬餘
為先八道의 調査만도 萬餘名
重且大한 明日의 煩悶

총독부사회과에서는 경무국과협력하야 전조선불량소년의 수를 작년십일월말현재로 각도에조사를 명령하엿든바 최근에다음 팔도에서 보고하여온바에 의하면 팔도의 분만도 일만이천륙백십륙명의 다수에달하는상태로 남어지 오도의 조사보고를 예상하면 그실수가 이만명을만히돌파할예상이라한다

그런데 이조사로말하면 십팔세미만의 소년뿐이고 경찰에서소위 불량소년이라고 취체하는범위의 이십일이세까지의 불량소년을 합산한다면 실로 놀낼만한 수자에달하리라한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한 목적은 각도의 불량소년의 실상을조사하여가지고 소년금주법(禁酒法)금연법(禁煙法)의 실시와 소년보호시설을 하려는일방 경무국에서는 도시의 중요경찰서에 소년계(少年係)를 특설하야 불량소년소녀의 취체를 하려는 준비조사이라한다

그리고 현재 보고하여온 팔도의도별불량소년수는다음과갓다

▲京畿道一、四三九名 ▲忠南一、六六六人 ▲全北一、五八八 ▲全南四一二 ▲慶北一、六〇九 ▲慶南三、三〇一 ▲黃海道一、二三三 ▲平北一、三六一 計一二、六一六

京城全北間定期航空線
二十一日初飛行

【裡里發行便】경성전북간정기항공로제일차비행은예정대로 이십일일에단행하엿난대 지정시각인오전여듧시사십분이되자 긔체는리리공장을선회한후 무사히착륙하엿다는데 다수 리리인사의 성대한 출영이잇섯고 잠간동안 휴식후 출발정각인 여덜시반에 다시 리리를 출발하여 우편물을 실고는 북향햇다

이비행은 일본내지와 조선만주간 항공선에 열락하기 위한조선내의 첫「로-칼」선으로서 경성、리리간 일백팔십「키로」에 정기적으로 하는우편비행인대 제일회 실시기한은 이달 이십일일 부터 삼월삼십일까지이며 매주일 화요일에 경성을 오전여섯시삼십분에 출발하여 리리착은 오전여덜시이며 다시금 리리출발이 오전열시라는데 사용긔착이 살므손긔이며 조종사는 신(愼)비행사다 리리우편국에서는전긔항공우편의 편리를도모하기위하여루일합의 지정과및 우편물배달시각과 항공취급에 요(要)하는부가료금은 요치안는다는공문을 발표하엿다

"룸펜氏"에게 쓰린二重過歲
檢束도二重檢束
今朝舊歲末大檢索

이중과세에 따르는 부랑자의 비애—구력세말을압두고부내다 도경찰부의 지휘아래 서경찰서에서는 지난십오일밤부터 열흘동안을 제일긔 제이긔 제삼긔로나누어 특별경계를 하여오든바 이십일일새벽은 드듸여 구력세말도 저무러 제삼긔 경계긔간에 들어감을따라 본격적으로 관내의부랑자 전과자등을총검속하야 일일히 지문을 대조하는등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인데 이십일일아츰에 검속된사람은 종로경찰서에 일백오십명을비롯하야 본정에오십명 서대문에 일백두명 룡산에삼십명 동대문에 다섯명모다 삼백삼십칠명에 달한다고한다

擴張京城의새걱정
新編入地土價暴騰
닥처올貧民住宅問題

오는 사월일로서 경성의 행정구역이 대확장되여 인구 사십만에서 일약 륙십만으로 증가하게되는데 이와가티 행정구역이 확장된다는것은 전부터 전해오든말이나 이번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자 무엇보다도 주목되는것은 종래에도 청량리(淸凉里) 왕십리(往十里) 서빙고(西氷庫) 로량진(鷺梁津) 영등포(永登浦) 마포(麻浦) 홍제리(弘濟里) 등 각방면이 각히 지가가 뛰여오르고잇다 그중에도 중요한 지방은 대개가 벌서 올해대로 올으기는하엿스나 사월부터 경성부로 편입되면 상수도 하수도 위생도로등의 시설도 밧비될것이며 또연흥포방면에는 인도교의 완성을 보며 전차가 연장될터임으로 토지리용률은 더욱늘어가지게될것이다 그래서 지역에따라지가가 올은비률은 갓지안흐나 그중에는 토지투기업자들이 맹렬히손을 뻐고잇서 예상이상의 폭등률을보고잇는터이다 이와가티 지가가 폭등률에따라 문제되는 것은 부민정지에 거주하는다수의빈민계급이다 부내에서 생애를부지지못하고 부외로 나가서 대개는땅을 빌리든가 국유지가타 공지에 빠락식으로 간략한 주택을 작만하고살는터에 그처럼 지가가 올라서 매매가빈번하게되며 새로운 방면으로 리용되게되면 당연히 이들빈민계급의 거주할곳이 문제되게 될것이다 처처에 생길것으로 파죽되고잇다、아직은 토지의 매매에끄치고잇스나 봄에 나가면 실제로 토지가 리용될곳이 만흘터임으로 문제가표면화할것이다 현재 경성부주위에는 동대문외며 평화문외를 비롯하여 사위의 린접지에잇는빈민주택이 변변히 증가되여가든 것이극히다수이어서 문제는극히곤난한사회문제로주목을끌고잇다

"가"난"한"마"을"의"美"談"集"
窮한이웃에보내는溫情

救世軍=구세군에서는 이십일일 오후두시부터 시내서대문정일정목 그본영과 평히정(光熙町)일정목 그 제사영(第四營)에서 백미스홉다섯가마니를 빈민 사백여호에 매호에 서되식 난호아주엇다고한다

紅卍字會=시내 루하동(樓下洞)세계홍만자회 조선주회(世界紅卍字會朝鮮主會)에서는 이십일일 오전열한시에 시내 북촌일대의 가난한분들과 고독한남녀로서 일백이십명에게 쌀비입으로 각각 솜옷 아래옷과양말한켜레식을 주엇다고한다

麻浦=익선동(益善洞)에사는김용우(金容禹)씨와 김강(金鋼)씨는마포(麻浦)일대의모진추위에떨고잇는가궁한 사람들에게난우어달라고 현금오백원을마포동회로 보내엇으므로 동회에서는 실구일오후 두서명에 가궁한사람에게 백미며두한말과 현금일원식채급하엿다고한다

桃花洞=구년말을당하야 도화동(桃花洞)제일구 동회에서는 빈민구제의뜻으로 일반동민에게 동정을구하얏는바 금품이 아래와가티 모집되엿다는데 동회에서는 쌀과나무를사가지고 음력연말에 일반빈민에게 지급키로 되엿다는데

동정자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百圓 松宮忠治 十圓式 鄭雲龍 金溶德 三圓式 崔帝用 朴松來 渡邊周助 磯野秀治郎 二圓式 黃哲柱 崔壽山 梁在萬 池錫允 順興商店 薛鎣心 一圓五十錢 金開門 一圓式 金益培 金昌壽 李明順 柳仲烈 安上吉 李仁榮 李振煥 金秉德 朴龍祿 崔昌壽 李雲善 陳祀穆 李圭榮 申鎣佑 馬漢奎 洪性舜 姜今龍 李鳳植 金興植 洪濟軒 金漢奎 徐德瑞 姜鳳秀 李命仁 金思亨 宋凡山 李基成 張相舜 申鎣秉 金榮淑 金二成 李鶴夏 五十錢式 鄭奎浩

金浦=김포군 양서면개화리(金浦郡陽西面開花里)류사화(柳士樞)(三)씨는 문영서(文泳瑞) 당하야 궁하게지나는 이웃을 걱정해서 이십일에 삽백원을 내노하서이웃일백팔호에 최저이원으로부터 오원까지 난호아 주엇다고한다 씨는 그러케 넉넉하지도 못한데 이전에도 이러한 공공한 일에는 여러번희사햇다고한다

蓬萊町=시내 봉래정(蓬萊町)이삼명치(伊森明治)씨는 이십일일 시내 서대문서에현금 삼백원을가지고와서 음력과세에 끼니도업는 빈민에게 난우워달라고하여서 그서에서는 곳 빈민을 조사하야 난호아주기로 하엿다고한다

勸農洞=시내권농동일팔칠번지 김종선(金鍾善)씨는 구력세말을 당하야 그동리안에잇는 궁민삼십호에게、현금륙십원과 백미삼표를 분배하러라는데 이십삼일 동회사무소에서 배급한다고한다

(사진은 시미광경、상은 문서、하는 홍만자회)

구역설이라더욱저정스러워

發明學會理事會

발명학회(發明學會)에서는 지난 십구일 오후네시부터 부내공평동(公平洞)일백십오번지 그회관안에서 제이십사회 리사회를열고 리사장 리인(李仁)씨의 사회로 아래와가튼사항을 결의하엿다

一、四月中 定期總會를開催할일

一、四月十九日擧行할發明家表彰式의準備委員은 左記諸氏를選擧할일

元漢慶 朴吉龍 金容鎭 金溶明 金憲昌 李春昊 金鳳集 安東赫 柳鴻 尹仲福 朴大乘 吉龍 玄鍾燮 趙漢宗 金容瓘 朴鎭烈 韓辰龍 李仁 朱鍾宜

一、發明品審查委員으로左記諸氏를選擧할일

一、科學데이에 科學知識普及會와協力하야 其記念事項을實行할일 以上

거스름돈詐欺

이십일 오후 여덟시사십분경에 시내 평동(平洞)삼십오번지 의 담배가가에 의치 김씨(金氏)가 혼자 잇는 틈에 어떤 남자 두명이 와서 십원짜리로 「피존」한상자를 산후 다고하고 돈을 이저버리고 안가저왓다고하고 아모 상관도업는 계집아이 하나를 맷기고 돈을 가지러간후 그대로 종적을 감추엇는데 고발을 드른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최근 이러한 거스름돈 사긔가 빈번함에 비치어 각서에 수배하야 극력 범인을 수사중이다

各道中等校設立을
總督府에서 統制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일간 중등학교설립을 통제할위원회를 설치하고 각도의 중등학교설립계획을 종합할터이라한다 그런데 현재각도의 중등학교설립에대하야는 처음에는 총독부의국고보조를 하지안코 지방비로 설립하게되는관계상 설립인가는 형식상 총독에게잇다하야도 사실은 각도에서 임의로설립하나 다름이업다 그럼으로금후에는 총독부안에 학무、내무、재무삼국의 수뇌부를 중심으로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조선적중등교계획에의하야 학교의배포(分布) 학교설립지방비재원국고 보조관계등을 조사결정하야 각도의중등학교설립계획을 일하게되엇다한다

罹災移民北輸計畫
全南全北兩道의 一千五百名을
惠山、滿浦兩線工場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십년도의마즈막 로동이민으로 만포선(滿浦線)과혜산선(惠山線)의 량철도공사장에 남조선의 리재민을수송하고저 방금 죽내(竹內)촉탁이중심이되야 조사준비를 거듭하고잇다는데 그수는 일천오백명상태임으로 이번에는 선발치안으로 전부단신(單身)로동자를보낸다한다 이민선발지는 전북과전남의 한재 리재민중으로부터 선발하고 경남북은경남각수리조합의대공사에 인부가 부족하는 정도로 만포선에 일천여명을보내고 혜산선은 첫시험이니만치 오백명을 보낼터이라한다

危險한 假裝使喚

이십일오후령시반경에 시내삼판통(三坂通)삼백오십칠번지 경전(京電)사원 산근도고(山根道高)(三)의집에 주인이업는사이에 어던삼십세쯤된사나히가 차저와서 주인이 급히쓸곳이잇서 돈이원을 갓다달라고 자긔가심부름왓다고하야 돈을사긔해가고 거진 동시각에 삼판통사십이번지 류야조일(柳野助一)의집에서도 그와가튼방법으로 사긔를해가잇이잇서 방금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다

危險한汽車跳下!
저승에跳下

위험한 긔차뛰여나리기—이십일 오전령시십삼분 봉천(奉天)을 떠나 부산(釜山)으로 가는 긔차가 경부선조치원(鳥致院)정거장에서 정거를 하려할때 시흥(始興)을 떠나서 오산(烏山)으로가는 차표를가진 나이예순살가량된조선로인이 뛰여나리려서 선로로 떠러저서 머리를 몹시 부닷드려그자리에서바로죽엇다

天氣豫報

七二八미리의 低氣壓은 오호츠크海에잇고 七七四미리의高氣壓은 北中國부터 朝鮮으로 퍼지고잇다 滿洲、朝鮮은 맑으며 湖南地方及朝鮮海峽은 風雪이强하다 表日本은 맑고 裏日本과 樺太地方은 降雪이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맑아진다 京畿道는 맑을때도가트며 明日도 今夜와 갓다

昨日 最高 零下四度四 最低 零下十一度七

今朝 最低 零下十四度一 正午 零下九度

運動競技

日光의氷上大會 朝鮮選手十名

第七回全日本氷上競技選手權大會는 來二十四日부터 스피ー드部(日光)、아이스、하키(芝浦)、피규어(山王芝浦)의 三種目을 一齊히 擧行할터인바 스피ー드部와 아이스하키ー에 參加한代表는 다음과갓다

◇스피ー드【男子部】崔龍振 安重熙 張日弘 朱鳳德 尹世楨 金永河 許景日 松坂(明大) 李仁源(朝鮮) 朴潤哲 安達 木谷 三代 松元(滿洲) 杉浦 高濱 山田 穗口 酒井 黑田 渡邊(早大) 潤間止 播磨 工藤(北海道) 由井 潤間留(中部)、【女子部】谷潤 前田 和田 渡邊 頴川(朝鮮) 今村 江島 村山菊 村山竹部(滿洲)

◇아이스、하키ー 延禧專門 大連 滿鐵 立敎 成城 日光古河 早大 慶應 全撫順炭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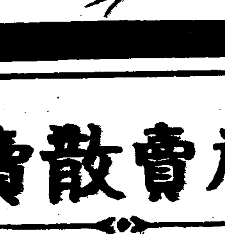
全朝鮮스키ー大會

【元山】來廿五、六兩日間 元山府外新豐里스키ー場에서 開催하기로되엿든 全日本스키ー選手權大會朝鮮豫選會는 雪亂舖으로말미암아 不得已 咸北城津附近에適當한場所를보아 應急設備를하야競技를行할豫定이라고한다

天一靈神丸
效能 食滯・吐瀉 霍亂・暑滯 消化不良 酒滯・胸滯 氣鬱・逆上 關格・頭痛 眩暈・腹痛
藥價 十錢 二十錢 一圓五十錢

金 銀 福 白 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 〇九五九番 〇九九二番 〇二八五番 〇〇八八番
振替東京六八八番 受信略號(トウケウイシフク)
出張所 平壤府旭町

布哇大學總長데원博士 天六病院長高木박터ー 發見創製
문둥病新治療劑
△注射와內服錠劑히도노끄ー루 副作用絕無△文獻進呈
△本病이여태까지不治된理由
△本病은발서難病이안인理由
△當研究所의자랑과其使命
定價 注射一〇〇瓦 金十圓以上 內服九〇〇錠 金九圓以上
發賣元 高木化學研究所 大阪市北區吉山町新京阪前

はれやか 胃腸の藥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山崎仁壽堂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點

時計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賣
商報進呈 義州初音町二 三一洋行時計部

好職業

분백정수 特製

白粉의 늘·白粉얼룩·여드름 땀띠·헐은얼굴·化粧後에 는高尙明朗・숙실부터 히게발사한香味가뜬다
定價 五〇錢
松澤ホーサン石鹼本舖 東京·大阪

(イ)高級時計
(ロ)實用時計

東洋時計會社 東京市杉東區

流行性感氣에는
ヘブリン丸

一月十五日發賣
沈淸傳 港口의一 눈물이 音樂 華容道 赤壁千餘船

綜合ホルモン(호르몬)含有

專賣特許

最近製造

世界に比類なき若返りクリーム

(세계에 비류엄는 젊어지는 크림)

本品은日本의자랑이다

人體가늙어지는호루몬을、드듸여化粧料에너어서쓰게되야美容界에서는 그革命的인 아조새로운發明에驚倒하지안흘수업다。即、現在發賣中인『最近製造』란記號가잇는 이クラブ美身クリーム는世界的으로類例가업는專賣特許綜合호루몬을配合하야、이을皮膚에서吸收케하야서 살결을젊머지게하는 자랑할만한性能을具備하게되엿다。 따라서、クラブ美身クリーム를 쓰시면、根本的으로人體의細胞機能을젊어지게함으로、科學的으로언제까지나 青春과美를保存할수가잇는秘訣이다。

絕對로他의追從을不許하는

この特長

❶**クラブ美身クリーム는** 잔주름과、쭈구럭이안남
世界的으로全혀比類업는專賣特許의젊어지는綜合호루몬을含有하야、더구나자랑할만한特長으로써、호루몬을발느기만하면皮膚로부터吸收됨으로살결을根本的으로젊게하고잔주름쌀、쭈구럭살을防止하야젊고젊은强力잇는살을맨든다。

❷살결을안것칠게
皮膚美養에重要한脂肪、其他살을培養하는榮養의配合에依하야서、살결에潤과色澤을나어서 겨울이라도살것칠을막고살결을가 늘게優雅하게한다。

❸理想的인白粉下가된다
白粉下로서의獨特한原料를配給하고잇슴으로異常하게도 白粉에 얼늑이안나고 오래持續되야서 化粧이안밀닌다。

❹빗을하게곱게한다
다시놀낼만한美白作用을함으로이것을日常쓰시고게시면不知不識間에빗이하여지고魅惑的인美肌가된다。

❺面刀後크림이된다
男子의面刀後에쓰시면面刀던과것칠믈防止하야皮膚를整齊하여주어서밋글밋글하는살이됨으로 아조 석爽快한觸感을 살에서 맛볼수잇

30전 40전 50전 80전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미신 크림)

專賣特許綜合ホルモン含有

見違へる程肌が若返るホルモンの神秘的效果

(몰나볼만큼 살이젊어지는 호루몬의 신비적효과)

最近美容界에絕讚을博得하고잇는 綜合호루몬이란?

女性의恐怖、容色의大敵이라고할만한잔주름살과、크주름살、쭈구럭살을防止한다고한다即호루몬을クラブ化粧品을媒體로하야皮膚表面으로부터吸收식혀서根本的으로살을젊게한다고하는劃期的인發明이完成되얏다。

皮膚表面에다、발너서호루몬을吸收식히는것에成功한구라부호루몬美容料에含有되야잇는호루몬은人體活動의源泉인 腦下垂體前葉호루몬、女性호루몬、皮膚호루몬、甲狀腺호루몬을主로하고그의植物性호루몬을配合하엿다。

特히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에含有되야잇는호루몬은、國際標準品보다五六倍强度의作用을하는것으로內服又는注射의境遇와가튼效果로살에吸收되야서수름살쭈구럭살을막고놀낼만큼優雅한彈力잇는살로맨든대比類할수업는效果를發揮한다。

000142

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二圓五〇전)과クラブ乳液(五〇전)다시體溫으로藥理作用을하는專賣特許의膵臟酵素의配合에依하야죽은깨여드름、班點等을께끗이除去하고빗을히게하여서몰을만큼美麗한살을맨들어준다十八歲婦人부터꼭使用하여주시오。

1.50

通知!
最近製造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クラブ淡白クリーム、クラブ美白クリーム에는專賣特許의綜合호루몬이含有되야잇스나價格은從前대로。

專賣特許 强度ホルモン・專賣特許 膵臟酵素含有

藥用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 크림)

불조심합시다

불은 정돈못된살림사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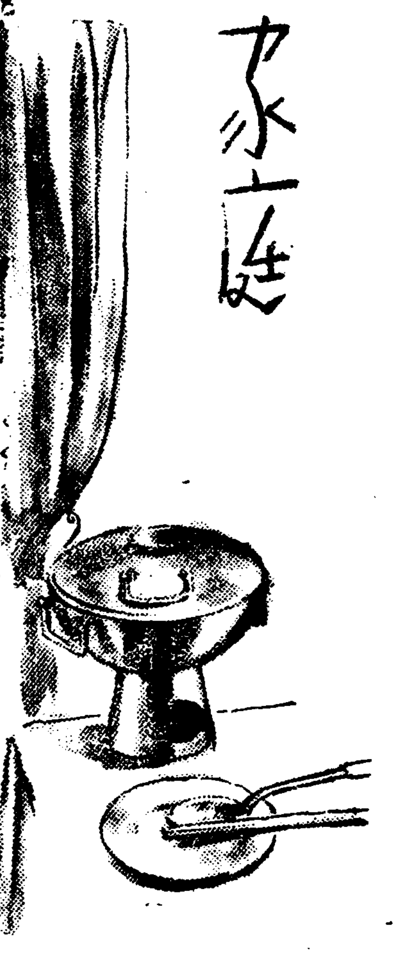
(작년일년동안 서울안에서 난 불이 일백아혼아홉번)

요사이로 엇전 불이 그러케 잣습니까? 바람이 부는 관계도 잇겟지요만은 그보담은 더만이 치위에 부대기어서 불조심을 잘 하지 못 하는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경성시내에서 난 불이 모도 일백아혼아홉번이데 거의 그 전부가 불조심을 잘 못한데서 일어 난것이랍니다. 그 무서운 불도 조심만 잘하면 피할수가 엇지 안습니다.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 기서 말을 들어다가 이아래 소개합니다 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규률(規律)이 업서 모든것이 정돈되지 안는데 잇습니다. 위선 개인의 살림사리를 예로 들어서 말해봅시다. 똥아래는 이사람 저사람 신을 함부로 벗어 내 던지고 부엌속예는 여긔 저긔 생철통 때게스등속이 굴러 다니지를 안습니까? 또 닭우리 마당까로는 재, 검부젝이, 쌀애기등속이 싸히어 잇고 아궁지미트로는 다 다남은 나무등걸 석탄부시러지가 그대로 남아 잇지를 안습니까? 그런데에서 큰불이나 다랑을 깨끗이 치워 노핫습니다는 만무라 혼신분지 수지 몬지가 한데 뒤범벅이 되야 잇습것은 사실입니다. 그와동시에 굴뚝이며 전긔스줄에 대해서도 어떠케되든 말든 무사태평으로 드려다 보기조차 안햇슴것임에 틀림이업습니다. 이런데다가 불똥이 뛰거나 담배불이 떨어지거나 루전(漏電)이 된다면 엇재 불이 일어나지 안켓습니까? 자긔는 그래도 자취지만 그가근방에서는 이웃 하나를 잘못만낫다가 그 무슨 봉변입니까? 하여튼지 불을 안 나도록 막는데는 모든데 규률을 세워서 정돈해 놋는것이 제일입니다. 개인의집이나 관청,회사,상점,공장가튼데나조금도 다름이 업습니다.

그러고 또 불이 일어나는원인은 집안을 두루두루 보살피지 안는곳에 잇습니다. 자조자조 집안만 보살피면야 애당초에 불이 일어날리가 업지요. 그것도 건중대매로 도라다녀서는 못 씁니다 보살필데를 보살피고 보살필만한것을 보살펴야 합니다.

一、굴뚝이 헐어 지지 안햇나 또 막히지를 안햇나
二、담배끄트머리를 끄지 안코 내버리지 말도록
三、방에 불을 과히 때지안토록
四、재를 치고 숫불을 끌때 주의할것
五、까소링이라든지 알콜이라든지는 불에 가까이 노치말것
六、애기네 들에게는 불작난을 못하도록 엄중히 일러두어야하고
七、전긔나 까스의 고장은 그 즉시 회사에 통지해서 고치도록

이에가지만 단단이 주의하고 참합이 보살피면 화재예방은 문제가 업습니다. 그중에도 자기 전 반듯시 한번씩 아궁지며화로며 단속을 해두는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교에 너무일찍 보내시지맙시요

날치운때 어린애기들거두기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께

치위는 아즉도 꿋나지를 안는데 보통학교는 다시 개학이 되얏습니다. 귀여운 애기네들이 아칩 일쪽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자면 얼마나 칩겟습니까? 벳어른 말슴에도 부모는 자녀에게대해서 항상 병이나 안 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것이 얼고 떨다가 무슨 병이나 나지 안 할까 엇재서 안타깝고 애처롭지를 안 하시겟습니까? 그러나 공연히 마음만 달리는 것보담은 실제로 주의하실 사항을 아서야 합니다. 참고삼아 시내덕수보통학교(德壽普通學校)에 게신 리보경(李寶卿)선생의 말슴을 들어다가 이아래 소개합니다.

李寶卿氏談

일반가정에서 애기네들을 마구다루는 것도 못 쓰지만 넘우위하는 것도 못 씁니다. 우리네들은 대개 좀 위하지 안하서 조휼때『어-』하고 떠들고 좀 곱살갑게 대해서 조휼때휼 뿌리는 피해가 잇는듯 십습니다. 날이 좀칩다고해서 그저 방속에나 몰아 너 두고 실브름도 안시키고 운동도 안시키시는분이 게시니 그러케 해서야도리어 그 애기네를 버리게되지 안습니까? 사람은 단련할 탓으로 이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인내력(忍耐力)이 필요할것인데 장래 그런애기네에게야 굿고 단단한 인래력을 바랄수 잇습니까? 요사이가치 치운때 학교에서는 어린애기네에게 소제를 시킨다고 불평을 말하시는 분도 엇지 안 하나 그것은 아조 잘못 된 생각 입니다 도리어 일반가정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똥을 리해하야가지고 추위에 대한 단련을 기지도록 조그만 심부름도 시키고 적당히 운동도 시키어 주시기를 히망하는바올시다.

×

또 운동을 시키어 조타고 하니까 하로종일 스켓을 한다는등 어름을 지친는등 모르는체하고 내버려 두시는 수도 잇습니다. 스켓을 하고 어름을 지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과하여서는 여러가지로 해가 만습니다. 첫재 어린애기네의 몸으로 하로종일 얼고 또 피곤해서야 몸엔들 이로울 리가 잇습니까? 둘째로 몸에 이롭다고 치기로니 공부를하고 나서 사이사이로 운동을 해야 하지 안습니까? 그뿐더러 학교에서도 될수잇는대까지 난로를 일쪽 피워 노코려고 하지만 만흔교실에케 피우기도 힘들고 또 한참 치운날은 피워노하도 넓은교실안이 곳 덥지를안는데 한시간 내지 사십분전이나 해서 학교로 쪼차보내시는수가 잇습니다. 지각을시키지 안하시려는 성의만은 감사하오나 그동안 애기네가 발발 떨고서서 돌아다니는 것이 여간 민망한 것 아닙니다. 그저 십분이나 십오분쯤 남겨 노코 학교에 닷도록 보내 주실수는 업슬까요。설사 애기네들이 진둥한둥 서둘러서 일찍이 오려고 하더라도 뜨뜻한 곳에 안치어 몸을 좀 녹히뒤 알맛게 보내시는것이 조치안할까요

비단옷입은애는

마음노코 운동을못한다

그러고 애기네들을 모양내어 주기 위하신다고 발간저고리 노랑저고리에 얄다란 비단옷을 입히어 보내시지를 안습니까? 그냥 입히어 보내는 것도 아니요 옷을 더럽힐세라 지재 지재 삼 타일러까지 보내시지를 안습니까? 그래노흐니 그 애기는 달은애기들과 가티 운동도 못하고 옷만 매만지며 그 치운날 한구석으로 비돌게 됩니다. 그보담은 두둑한 솜옷을 아모리케 해 입히어서 마음대로 뛰고 놀게 하는것이 낫지 안할가 고 생각합니다. 또 치운데 들고가기도 어렵고 밥도차진다고 점심벤또를 들려 보내지 안코 나종 사람을 시키어 보내 주시지를 안습니까? 그래서는 가지고 오사람이 우리 애기밥이라고 수선을 떨고 차저 주지를 안습니까? 여러아히들이 잇는데 유독히 그러케 떠받들어 놋는것은 어차피다 재미가 업습니다. 그보담은 제 먹을것이니 제게 들려 보내시는것이 낫지 안흘까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물을 끄려 놋습니다. 결코 그러케 차게 먹이지는 안습니다. 반찬도 그저보통스것이조습니다. 별한반찬이라고특별히맨들것은조금도업습니다

삼학긔 첫날

무섭타는애기

어려서교정해야한다

최근 콜롬비아 대학 교육과 아동부 교수『아ー사ー자ー실드』교수와『푸랜시스·뻬·홈스』교수두분이『아동의 공포(恐怖)』에 관한 해부라는 연구론문을 발표하엿는데 그론문의 요점은 유아의 공포심에 대하야 그 공포심을 실험하야 그 공포심을 가지지 안도록 교정하는대 관한 흥미잇는 방법도 기록되엿다합니다 이두교수는 수백명아동에 대하야 실제적으로 관할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되『아동이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바와 가치『성장(成長)』과『경험』에 잇스나 어떤 종류의 공포는 그부모가 그것을 곳처주지 안흐면 어룬이 되여서까지 계속되는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 공포심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칠것인가 하는대 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얏습니다

『가령 유아가『어두운것』에 대하야 공포심을 가지게되는때는 그부모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키는것이 조흡니다 또다른아동이 아패나가서 작난하는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야 작난하도록가르키지 안흐면 안됩니다. 또는 순사를보고 무서워하는 아동에게는 그부모는 아히를 다리고일부러 순사잇는곳에가서 여러가지 잡담을 주고밧고하야 순사도 보통인간이니까 무서워할것이 업다는 의미를 알여주어야합니다

그밧기 그론문 중에는『두살 된 유아의 공통인 실신 다섯살이 되면 업서지는 것이나 동시에 무엇을 알여고 하는 심리가 느러가는데 따라 새로히 이러나는 공포심도 잇다』하엿습니다

가정의학

림질의고열료법

問 렬로써 림질을 치료한다는데 렬로써 림질을치료할수잇다는것을 현대 의학으로 증명할수잇습니까 속히가르켜주십시요。(全南光州K、D、L)

答 림균은섭시사십도이상의렬이면 사멸합니다。이것을 리용하야 수년전에 엇던 의학자의 실험한결과의 보고가잇섯스나 여러가지 결점이 잇서서 실용은 못됩니다。즉림질환자에게 마라리아(瘧疾)원충을 주입하야 인공적으로 마라리아 발작을이르키어 사십도내외의 렬을 발생케하야 몸속에 드러잇는 림균을 사멸식히게하고 마라리아는 나종에 치료하는것입니다。그러나 림균은 시험관속에서는 확실히 사십도고렬이면 완전히사멸하지만 생체내에서도 과연그러한지 의문일뿐외라 상당히위험한 치료법이니까 추상할것은 못됩니다 (醫學博士 金晟鎭)

륭비술

問 경성시내에서 융비술(隆鼻術)을 전문으로하는 병원을하교하시고 파라핀융비술은 어느병원이제일유명하며 그의비용은얼마나됩니까 (大邱一讀者)

答 정형외과의부문은 오즉대학병원에 설치되야 잇슬뿐이오 나 융비술은 외과이면 어데서나 될수잇을것입니다。비용이라든지 제일유명한병원은말삼할수업습니다。당신이 신용하는병원을차저가십시오 (醫學博士 金晟鎭)

라디오

二十一日(火曜)

◇午後六時 아코ー듸온獨奏 一、瀨戶의風景…福島編曲 二、알파行進曲…李東坡作曲 三、安樂한家庭…李東坡編曲 四、즐거운農夫…金生峰編曲 五、사랑과名譽를爲하야…알버ー티作曲 伴奏 아르파하ー모니카밴드 金文星 指揮 金生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父母恩重經(一) 佛專講師 金敬注
◇同七時三〇分 講演 베르그손의哲學 李載薰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遊仙歌 三、船遊歌 四、방아타령 梅瓊蘭 李彩璇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絃樂五重奏 絃樂五重奏曲 第二〇長調 : 모ー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메누엣트 第三樂章 안단테 第四樂章 알레그로 第一빠이올린 末吉雄二 第二빠이올린 桂平太 第一쎄오라 藤田徑秋 第二쎄오라 大塚淳 첼로 中島方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春香母壇모고빈는데 鼓手 池龍九 綠素玉
◇同九時一五分 誦書 千手經 朴雲陽

第一放送

◇午後六時 (釜)童話
◇同六時二五分 (東)靑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釜)長唄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同八時五〇分 (東)小唄
◇同九時 (東)立體漫談

二十二日(水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沈淸歌 朴秋月 鼓手 丁元燮
◇同三時一五分 主婦時間 어린이感氣이야기 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根
◇同六時 童謠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經典解釋 父母恩重經(二) 佛專講師 金敬注
◇同七時三〇分 講演 中央日報社會部長 朴八陽
◇同八時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吳翡翠 愼淑
◇同八時二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高永泰 大笒 朴鍾基 奚琴 池龍九
◇同八時四〇分 家庭劇 金海雲案 配役 朴永昌(不良靑年)…韓雲瑞 金龜燮(그의親舊)…李流星 李福順(국밥장사)吉七水 張愛娘(妓生)…崔庚善 張錦娘(그의동생)…金紳英 張大用(그의父親)…金海雲 桂順(下女)…金玉姬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効果班 音樂伴奏 피아노 金泰雲 맨도링 尹喜琴 아코듸옹 趙憙成 車成玉

曆

一月二十二日(水) 十二月癸巳(小)廿八日 癸卯·金·甁·滿
◎祭祀에宜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婦人講座
◇午後十二時五分(東)째즈
◇同一時(東)婦人時間
◇同六時〇〇分(東)合唱
◇同七時三〇分(東)趣味講座
◇同八時(東)一人一話

二十三日(木曜)

◇午後零時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산타루치아 二、라·팔로마 三、異教徒의 사랑가 四、켄터키·호ー므 五、하와이의 노래 六、올드·블랙죠ー 七、칼렛지의밤 八、콜로라도의달 하와이안기타ー鄭永來 스테니슈기타ー鄭明采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女性의覺醒 李貞圭
◇同六時 邦樂 一、獨唱…金蓮淳 1. 悲歌 2. 靑山流水 二、피아노獨奏…洪金珠 處女의祈禱 三、合唱 1. 회토人물 2. 菊花 伴奏 李明會 進美佐保
◇同六時二五分 講座 趣味와敎養 金晋燮
◇同七時三〇分 國境警備慰問의밤 (東京)一、第一線의사람들에게人事 (大阪)二、歌謠曲 美奴 丸山鶴吉 =京城으로부터全中=三、人事 平安北道知事 大竹十郎 四、講演 國境警備의體驗談 京畿道警部 松岡脩一 五、國境警備의노래 警察官有志
◇同八時二五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吹打 笙 大笒 細笛 杖鼓 趙奉石 金聲龍 李一宇 金點
◇同八時五五分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開城난봉歌 三、漢江水打鈴 四、사발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래 七、唱夫打鈴 申海中月

大笒 金永根 細笛 高載德 奚琴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 어머니의時間
◇午後〇時〇五分 (大) 管絃樂
◇同二時 (東)家庭講座
◇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名)座談會
◇同七時三〇分 (東大)國境警備의밤
◇同八時二五分 (東)琵琶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우리차지

아저씨가 그린 우리들

너이들 얼골 그려줄테니
먹하고 붓하고 가저온。
옥순이는 울기쟁이니까
입삐뚜렝이를그려야지。
코훌리는 수남이는
코키리 코를맨들고、
복남이는 밥튀정하
는애니까 옷두기배를
그리고、입을광우리만
하게 그려야하겟다。
=이소리를 듯더니
모두 다라낫습니다。

(글쓴사람 박치호)

當選小說 寺下村 (13)

金廷漢 作 安夕影 畵

종넙고초넘매 역중이난 그들의 창자에는 확실히 진미엿다

『제ー기、또 연설마듸나 잇겟네』

하고 또쭐이가 그만먹고 담배를 피어물자、겻테 안젓든 고서방이、

『연설아니라、무룡을 끌어도 허는수 잇나!』

하고 맛불을 울린다。

사실 동내 집회장에서는 발서 두번이나 사상선도 강연회가 잇섯다。그러나 교풍회장이 쇠다리주사 진흥회장이 진수그러니 그들의 설교로 감분될 처지는 아니엇다。

농부들은 누가 뭐라고해도 소작료 빗가튼것 생각할 여지가 업다。그저 제가 지은 곡식이면모조리 베혀다 먹는다。가다가는 남의 것도。

그럴사록 동리의 소위 유산자인 쇠다리주사와진수의신경은 극도로날카로워젓다。

이튼날 아침、철한이는 안ㅅ끕 논에서 코노래를 부르면서 낫을 휘둘럿다。찬물내기가 되서 겨우 거긔만은 가물을 덜 타고 벼이삭이 제법 느러젓다 그는 홍타령을 부르면서、어제 어머니의게서 처음으로 들은자긔의 혼자말을 생각햇다。상대자 동내서 제일가는 덕아엿다 한시절 치삼노인이 쇠다리주사의 말에 꼬엿슬때는 쇠다리주사의 첩으로 가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문이 나서 울고불고하든그가 결국 자긔에게 오려는 것이다。그 리면에는 옵바 들깨의 힘이 크다는것을 짐작하면、한업시 그가 고마웟다。그리고 그의 머리속에는 작고만 덕아가 떠올랏다。한동리에 살면서도 마조칠때마다 얼골을붉히고 지나가는 덕아! 또렷한 두눈! 그리고……그러타。바로 코잔등우에 무엇을 생각는듯한 지난봄 덕아가 그논에 모내기를 왓슬때 허여케 들어내엇든 그건강한 팔다리!──예까지왓슬때 철한이는 혼자서 피웃스며 머리를 점점 흔들어 생긔를 헐어버리고는、베혀둔 벼ㅅ단을 주섬주섬안아서지게에 지웟다。

그래서 자긔집 압뒤을 돌아올때 그는 갑작이 발을 멈첫다。──안에서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렷기때문이다。

『에이 미친년! 저년이 배지를 굶어가면서도 꼿 갑만흔귀가지고、뭐、자식 장가?』

철한이는 이말에 화가 벗석 치밀엇다。그리고 거긔서잇는것이 남이 볼까 몹시붓그러웟스나 잠간더 지체햇다。

『자식을 나노앗스면 장가를 들여야지、그럼 어쩔거요?』

어머니의 눈물겨운 대꾸다。

『저년이 꼿 그래도 제잘햇다지? 엑기、비러먹을년 가트니!』

『내가 종년이오? 말만 하면 이년저년하게?』

『저년 죽일년봐!』

『죽일려든 죽여줘요。나도 당신네집에서이십여년이나 종노릇을 해주고자식도 장가를 나인데、이년저년소리는 인제 듯기 실혀요!』

『저년이 누구압페서 곳장 대꾸를 쫑쫑거리니? 엑기 망할년 죽어라、죽어!』

아버지의 벼락소리와 함께질그릇 깨트리는 소리가 나드니 이내 어머니가 외마듸소리를 ─질은다。

철한이는 번개가티 집으로들어갓다。아버지는 어느새에어머니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잇다

『아이구 이것좀 놔요。내잘못햇소。내잘못햇소』

어머니는 머리를 엇사쥐고빈다。

『아버지 이거노세요。나를 자서가면서 이게 먼니까。이옷사람 웃으린!』

철한이가 뒤에서 안고 말리니깐 아버지는 겨우 떠러진다 그래도 분을 못참고서、──

『이 죽일년아、나는 여태까지 누종노릇을 해왓니? 너이들이 들어서내 빽다기까지 깍어먹엇지、웅 이동한년아!』

하고、이를 탈탈 갈아붓친다

차홉바람에 식경을한 막내아들은 밥도 못어더먹고 눈물만 그렁그렁 실어가지고 학교로 간다。

京城女子基督靑年會 主催 / 朝鮮日報社學藝部 後援

第8回 女子懸賞歌鬪大會

時日 二月一日(舊正月九日 土曜日)午後七時
定員 五十名 會費 二十錢
場所 京城女子基督靑年會館(西大門町一丁目 電車停留場압)
申請 定員되기전에 곳하시요 (申請場所는 上記場所로)

ウテナ白粉

우 데 나

살빗 입니까?
그것은 당신몸自體의色 이라고도할만큼 당신의살결에 알맛는빗이다
美人의 基準이라고하는 우데나의살色
그것은 當然히할말이다

오ー클 입니까?
그것은 젊고젊은靑春의빗 당신의젊음을 빗내는새로운빗이다

白色、ナチュレル
肌色、濃肌色、健康色
オークル一號、オークル二號
プルン
各色廿五錢、卅二錢、五十三錢

東京·久保政吉商店

11.1-33

鄕歌解讀에就하야
特히願往生歌를中心으로
⑫ 梁柱東

「아으」의 類例로는 「위녀어연」等이잇다。 樂章歌詞所載『翰林別曲』『西京別曲』『思母曲』『雙花店』等諸曲에는 모다 위을 썻고 安軸의 關東別曲 竹溪別曲(關東瓦注)에는 偉字를 썻다。

다음 此身遺也置古」의 遺字를 小倉博士는 遺으로하야 「이몸은 그냥두고」라 읽엇으나、誤讀이오、殺之遺也」라하드래도「그냥」이라 읽는것은 無理가 잇다。 問題의 字는 今西氏本(古典刊行會景印)·光文會本에 모다 遺·인데 成遺字를 쓴 異本이 잇는가。『遺』의 訓은「기든」又는「ㅂ린」이니、博士가 다른곳에서「끼티」라 訓한것은 出典未詳이다。

기든願이잇└니라(有遺編)(杜詩卷三·六五葉)
가든자최를어두니(得遺跡)(同上卷三·六六葉)
건네여、가롬업스샴을 善ㅣ오(淸無遺日善)

等과가티 흔히 前者로 譯되여잇고、또 이境遇에「ㅂ리」보다도「기든」의 訓이 歌意에 꼭合하므로 나는 本句를「이몸기려두고」라 읽는다。 더구나 下句를 參照하면 問題의 字가 반듯이 遺·라야할 必然을 알게될것이다。

(10) 四十八大願成遺去
四十八大願일고샬가

『成遺賜去』를 博士는 『닐우고샤과라』 읽엇으나、去一字를「과라」로 읽음에 于先 不安이 잇는데다가、더구나 그럿케읽으면 그意味하는바는、嚴莊에게 勸하야 四十八大願을 成就하사이다 하는것이니、當初부터 事實에 어그러질뿐만아니라、抑 四十八大願은 嚴莊에게 勸할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四十八願이란 말할것도업시 阿彌陀佛(即 無量壽佛)이 法藏比丘이엿을적에 世自在王佛압에서 세운 誓願이니 이른바 選擇本願이다。 그內容은 諸說이 區區하지만、普通 惡趣無名願(日本僧了慧의 無三惡趣願) 無隨惡道願(同上、不更惡趣願)以下現獲忍地願(同上、得三法願)에까지이르는四十八條이다。 特히注意를 끄는것은 第三十五願『女人往生願』(了慧『無量壽經抄』의 說에依함。普通은『永離女身願』)이니、本歌의 意味는 特히 該願과 密接한關係가 잇는것이다。

『成』의 訓은『일』(氏는『닐우』라

내히 이러 바라래 가느니(龍歌第二章)
지비 이러곧(室成)、(杜詩卷七·第一葉)

「遂乞고」、「賜去」는 「살가」라 읽을것이다。 鄕歌中「去」를 文의結尾에 쓴例는 本句外에 嫉姤此心音至刀平去(隨喜功德歌)가 잇는데、이것은 의심어시

『嫉妬人모숨닐도올가』

라 읽을것이나、歎賞의 意를 包含한 疑問形이다。 딴은 小倉博士도 疑問形으로 보아서 『嫉姤人모숨이 닐도올가』라 읽엇다。 但 博士가 『닐도올가』를 「니르러(至) 올(來)것인가」라 意譯한것은 失手다。 나의 생각으론 「來」는 動詞가아니오「ᄒᆞ올가」의 『올』의 借字이니、「來去」라 速斷하는것이 그야말로 자미가 잇스므로 戱弄삼아 借用한것이다 「닐」은 「니르」(至)로 解하여도 通치안흠이 아니나 原義는「起」(닐)일것이다。

이미「至刀平去」를 「닐도올가」라 읽은바에는 本句의 「成遺賜去」도 當然히 「일고살가」라 읽을것이오、또 읽지안을수가 업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博士가 前者의「去」를「가」라 읽고、後者의「去」를「과라」라 異讀한것은、아마 例의 歌意全體의 一步의 誤解로말미암아 本歌의 結尾를 억지로「…하여지이다、하사이다」의 뜻으로 만들지아니치못한 때문이겟다。

다음은 「살가」의 뜻인데、여긔의 「가」는 좀·毛色이 다르다。 元來 「…ᄒᆞᆯ가」의 形은、그由來는 무롯 갈은것이나、세가지 若干相異한 用法이잇다。 即 第一은 前揭「至刀來去」(닐도올가)와 가튼 疑問形이오、第二는 「…ᄒᆞᆯ가ᄒᆞ다」「ᄒᆞᆯ가셩ᄀᆞ한다」와 갈은 「…하려한다」의 뜻이오、第三은 「ᄒᆞᆯ가저허」「…ᄒᆞᆯ가두려」와 가튼「…하지나 안을가 두려워한다、걱정한다」의 뜻이다。 本句의 意味는 即 最後의 境遇이니、

佛道를 일우려ᄒᆞᆯ가 저호신젼ᄎᆞ로(恐成佛道故)
(丹經綸上一之二·二九葉)
저·호·ᄃᆡ 神靈의 붓그리우미 ᄃᆞ욀가 ᄒᆞ노라(成恐當神羞)
(杜詩卷三·七一葉)

等이 그好例이지마는、이形은古知하는바와가티 特히 時調의 結句에 慣用된다。

淸江의 고이 시슨몸을 더러일가 ᄒᆞ노라

時調는 普通終章末尾의 三字를略하야 부르는것이니、上例에 잇서서「ᄒᆞ노라」三字를 省하여도 「…ᄒᆞᆯ가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진것이니 本句의 形式과 全然히 가튼 淵源이다。 이로써 本句의「일고살가」는「成就할가 두려워한다」의 뜻이오、前句와 合하여보면 그意味하는바는 「아아 이몸을 기려두고 四十八大願을 일우실가 두려워한다」即「이몸을 除外하여 두고 無量壽佛께서 四十八大願을 다 成就하면 이몸은 어이할ᄭᅡ」하는뜻에 不外한다。 特히 前述한四十八願中 第三十五願을參照하여본다면 作者의뜻을 足히알것이다。 진실로 含蓄이잇는 切切한 노래이니、또한 當時佛敎의 知識이 大衆一般에게 얼마나 浸透하엿든가를 엿볼수잇는 適切한 一材料이다。 대개 一女人조차도 無量壽佛의 四十八願의內容이 무어인것쯤은 充分히 知悉하엿든것이다。

學藝

우리가要求하는『理論과實踐』③
朴鍾鴻

單只『理論을爲한理論』『實踐이 問題가아닌理論』을 오르지 理論」에서만甲論乙駁、이러한理論이百出하야 批評의批評을거듭한들 그것은한갓소피스트」들의일이오 이러한『소피즘』의机上空論은 應當

實踐

에게잇서서 대번에餘地도업시 粉碎되고 말것이올시다。 우리는眞心으로우리의實踐의方向을 指示하며引導할 指導原理로서의理論을 要求하고잇는것이아니엇습니까?

理論이 어대까지라도 그의本領을떠나서는아니될것이나 그러하되 그硏究態度에잇서서 所謂理論의純粹性을固守한다는意味에서 現實的關心이마치 理論性乃至學問性을混濁케하는것이라하야저 獨逸의哲學者『후설』이取한態度模樣으로 이現實的關心을『과로』속에가두어너어 有若無한狀態에다 排除하야버리고 거기에對한一切의判斷을中止하야 無力한現象인것가치 外樣을꾸며노코 말어야할것이겟습니까 그리하야거기에서 必然的으로생기는 硏究主體의現實逃避 現實遊離化라는 다시업는損失、犧牲을하야서까지그 硏究對象의 純粹化를 企圖하여야될것이겟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힘의理論도 차자볼수업슴은 너무나當然한 歸結일것이올시다。『純粹理論』이라는엇던一種의 理論이우리의實踐과 뚝떠러저서 저어느딴世界에 홀로숨어잇다가 때따라 必要에應하야 우리에게 來臨하서서 應用되는것이 아니올시다。 實踐을 單只理論應用의 一例로서만 看做함은 自然科學에서나 볼수잇슬법한 일일는지는 모르되 우리의現實이 하는바 社會」一般은 그처럼 『理論』一한偶然的一例에不過한 自然現象과는 그範疇를가리하야 取扱하기가매우 困難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普通常識으로 生覺하면 理論이實踐으로부터 絶緣되여야 完成될수잇슬뿐아니라 實踐으로부터絶緣치아니하고서는 眞實로客觀的으로 硏究를進行시켜 나갈수 업다고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實踐的인理論、우리가 가장 渴望하야 마지아니하는바의 理論은 그것이 實踐을 認識論的 基準으로 하는限에 잇서서 實로 實踐가운대로부터 做出되며 形成되는것인同時에 그實踐에 依하야 眞理가 決定되고 또한 그實踐自體속에 살고잇슴으로써만 그理論이 이實踐을 指導할수잇다는 本質的 關係를 가지고 잇서야 할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特히 注意하여야할것은 우리가 今日에 잇서서 要求하는바 實踐은 決코 古來로 知와 對立시켜論議되여온 漠然한 行과는 그類를 달리 한다는것이 올시다。 우리가 實踐을 가장 具體的으로 把握하려고 努力한다면 저 決意한다든가 悔悟하야 뉘우친다든가 하는 個人의 內面的이며 主觀的인 이른바道德的實踐이아니오 身體를가진

主體

로서 自己와矛盾的으로 對立되여진 客體로서의 對象을 克服止揚하는意味에잇서서의 實踐이야며할것이올시다。 今日에잇서서도 저獨逸의『하이데가ー』나『야스파ー』에依하야 主張되고잇는바 所謂實存哲學이 어데까지라도 理論的態度를排斥하고 行爲的인 現實的主觀性우에立脚하기는하지마는다가티 저『케르케고ー르』의 論理的主觀主義의 系統을 밟고잇는이만지 到底히 客體와의 關係에 잇서서 비로소 把握될수잇는具體的實踐이 問題되지못하고 亦是 個人의한갓 內面的이며 倫理的인 行爲에 끄치고마는것이올시다。

『칸트』가 일즉이 蒼空에서반짝이는 별과더부러 그기畏敬의 念으로서 對하엿다는 內面的道德律이라든지『헤ー겔』이 바로絶對的精神의 領域에다둔 理念等이 오늘날에이르러 그神聖하다든『빛ー己』이 剝奪되고 다가티 時代의 社會的構造에 依하야規定되며 漸次로 論議되고잇는이때이거든 이제다시금 內面으로만沈潛하는行을 억지로高調하야 우리가要求하는바實踐을 거기서理解시키려고한다면 그야말로 一場의『넌센스』以外의 아무것도 期待할수업슬것이올시다。

東洋訪問途上의『살라핀』을論함 (一)
咸大勳

一

『살라핀』이 이달下旬 東洋을 차저온다고한다 그리하야 東京을 中心으로 그의音樂會가 盛大히 열리리라하니 幸히그때東京을갈수잇다면 그의 肉聲을親히들을수가잇슬것이다 그러나元來音樂家도아닌 내가只今 그가오기도전 이붓을들게되는것은 決코이機會에 내가무슨 그의音樂的價値라든가 그의音樂家的地位라든가를 論하려는데서 出發한것이 아니오 또내가 그럴資格도되지 지만ㅡ다만 오랜동안 내가경모하고잇는 露文豪 『마심·고ー리키ー』의 著書와 評傳을 읽는동안『고ー리키ー』와 이『살라핀』과가 奇遇하게도 가지가지因緣이 잇섯든것을 記憶한데서 이글을 草해보려는것이다 더구나 昨年 團成社에서『파프스트』가 監督한 音樂映畵『똥·키호ー테』를 본나는 그映畵가 가지는『똥·키호ー테』的인 스토리에서 感銘바든것도 事實이지만『살라핀』의 俳優로서 能俐한 演技를 보혀준것과 그노래가가진 音樂的感激이 더한층 내心琴을 울린바가 잇서 이글을 쓰는데 또한적지안흔刺戟을 밧엇다는것을 말해두려는것이다

二

『고ー리키ー』의評傳을 읽어보면『一八八八年『고ー리키ー』가 카잔어떤菓子製造所에서 勞働하고잇슬때 때마츰 거긔온 어떤조고마한 오페라劇場의 코ー러스團員을 募集하엿이 잇섯든데 樂에 才質이 잇는『고ー리키ー』는 거긔 뽑히게되엿다 그런데 그때『고ー리키』와가티 應募하야 團員이되지사람중에 『살라핀』도 잇섯다는것은 퍽滋味잇는『에피소ー드』다란 旬節이잇는데 이것은 내게는 참말 끗업는 興味잇는 資料이엿다 그리하여 여려가지로『고ー리키ー』와가티 그의生活을 더듬어보앗드니 거긔는 가지가지 자미잇는 奇緣이만흔것이다

『살라핀』은 今年六十三歲로 오는二月一日이 그의生誕日이다。 그有名한 볼가江畔의詩的인 都市『카잔』가난한 農家의집에서나가지고 少年時節은 참말 苦生사리속에 지내엇다 집이가난하야 正統的인 音樂敎育은 말할것도 업고 普通敎育쯤차도 밧지 못하고 十歲되든해에는 남의 下人노릇을하다 그러나 그는 노래는 잘불럿고 演劇求景에 精神은 팔렷서도 일에는充實치를 못하엿다 마ー침『고ー리키ー』가 主人모르게 冊을 읽고 돈이 생기면 冊만 사든것과 마찬가지로、그리하야 『살라핀』은 이『下人』노릇에는 成績이 不良햇지만 敎會聖歌班의 少年歌手로서는 評判이 大端히조하 얼마하지안허서 大僧正附의 合唱團歌手로써 얼마간의 收入도잇게되엿다 그런데 그合唱團의指揮者로부터、겨우音樂의 初步를 學術的으로 배우게되엿다 이리는동안 洋靴店主人에게 不信되어 그는 꿋내 그商店에서 逐出이되고말엇다 눈물속에 그는 거긔서 六十露里가량되는『아르스크』라는 조고마한 마을에서勞働도하고 村事務所에서 筆耕를 하다가 『고ー리키ー』와함께 카잔의 商店 떠이로서 돈버리하는 身勢가 되엿다。

이것은 『고ー리키ー』의 生活과 恰似하야 가튼 카잔땅은 아니지만 고ー리키ー도 『카잔』서 머지안흔 볼가江가 니쥐니노브『고로드』(只今은 고ー리키市로 變名)에서 나가지고 小學校에 드러간지 겨우 五個月만에 天然痘에 걸려가지고 退學한채 집안이 가난하야 다시 就學치못하고말엇다 그리하야 그뒤十歲때에『고ー리키ー』도 勞働的生活의 길을 求하야 신발파는집 下人으로 드러가게되엿다

이러다가 고ー리키가 十五歲되든해『카잔』으로가서 菓子製造所에드러가 그德氣속 地下室에서 하로 十四時間式이나 勞働하고 잇슬때 『살라핀』은 거긔 어떤洋靴店에서 下人노릇을 하고잇섯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에온『오페라劇團』에 맵아으로 加入이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처음은 코ー러스에도 들지못하는 하잘것업는 멤버ー의 하나가되엿기때문에『그리칸』의 歌劇『쥐ー즈니차라』(皇帝에 바치는生命)의 舞台치는 場面가 른데나 나와서市民中에끼어 萬歲라고 소리치는것이 그의그날 밤役의全部이엿섯다

그런데 그때『고ー리키ー』는 그보다도 聲樂이 훌륭하야『루ー빈쉬타인』의 歌劇『惡魔』의二에서『살라핀』은겨우 驛傳人의 하나로扮하엿슨데 고ー리키ー는 堂堂한 레ー너ー歌手로서王子의 侍臣으로扮하야 有名한男聲重唱 (밤이여)를 불럿다는건 只今생각해도 자미잇는에피소ー드이다

演奏中의『살라핀』

漢詩募集
題 春雪
押 風
限 一月末日
薄謝進呈

科學

000141

榮養學解說
세부란스醫專醫化學硏究室 (一) 李鶴松

一、緒言

吾人의身體는 複雜한化學的變化過程을經過한 榮養素로構成된 細胞의集成體이다 이細胞內에發現되는生命은 榮養素의含有한化學的『에너ー지』의 消耗現象에 不外한다 다시말하면 榮養素는 우리의身體細胞를 構成하고 또 거기生命을 賦與하는唯一한生活要素이다 그럼으로 榮養은個人의健康乃至生活動力의源泉이될뿐만아니라 社會의盛衰와도 至大한 關係를가진 重要한因子이다 歐米各國에서는 일즉이 이點에着眼하여 榮養硏究를進行하여엿스나 顯著的發達을보게된것은 世界大戰以後이다 長期間에亘한戰爭은 食糧의 不足或은 榮養素의 一部分的缺乏(비타민가튼것)을 招來하게되여 國民의 健康及 思想兩方面莫大한 打擊을 주고 出征한 軍人의 戰鬪力을 非常히 減殺시켯다 이러한 榮養不良에對한 辛酸한 經驗을 가진 歐米各國은 榮養에 關한 硏究를 率先 進展시켜 急激한 發達을 보게되엿든것이다

現下의 社會相을 보면 貧富의 懸隔한差、就職難、凶作等으로 因한 朝飯夕粥、缺食兒童의 頻發、草根木皮로 連命、榮養不良等等 榮養을 中心으로한 問題가 먼저 解決을 要하는 焦眉의 問題中의 하나이 아닐가 生覺한다。 이는 勿論 社會政策、食糧政策等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것이나 이政策의 効果를 顯著하게 하는것은 또한 個人의 榮養에 關한 知識普及에 잇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榮養에 對한 關心이 最近에 이르러、非常히 深切하여진것을 容易히 發見할수잇다 이는 民衆의 保健 社會의 榮養을爲하야 大端히기쁜일이다

榮養學의分野는 大端히廣汎하다 이것을大別하면 科學的榮養과 經濟的榮養學으로 分類할수잇고 科學的榮養學은 다시 自然科學方面과 精神方面(心理學)의榮養學으로 分類할수잇다 그中에 榮養學의根底가되는것은自然科學方面으로 硏究하는 榮養學인데 그가운데는 食品學과榮養學의두部門이 包含되여잇다食品學이라는것은 化學、植物學、動物學등을 應用하여 食品과 嗜好品에關한것을 硏究하는學問이오 榮養化學이라고하는것은 生理學 生化學을 基礎로하야 榮養素의 人體內에잇어서의 物理化學的變化를 硏究하는 學問이다 그럼으로 榮養化學은 自然科學的榮養學의 根底가되고 榮養學의 基礎科學의 地位를占領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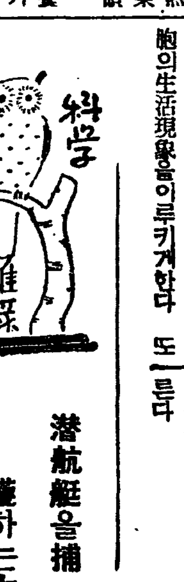
그럼으로 이번은 主로 榮養化學에關한것의槪要를 記述하기로하고 그殘餘部分은 機會를보아다시쓰려고한다

二、榮養素

A、榮養素의意義

우리들의體內에는 物質의變化와熱에너ー지와各種運動에所要되는 機械的에너ー지가持續的으로 消耗되여 凡百의生活現象을 維持하는것이다 이『에너ー지』는 體內에서 原發的으로 生成되는것이아니고 外界로부터供給되는『에너ー지』를變轉시킨것이다 그럼으로 한번『에너ー지』의供給이杜絶되면 體內에消耗될에너ー지의 變轉이끈기고 여러가지生活現象이停止狀態에빠저 生命의死滅을免치못하게되는다 이『에너ー지』는 植物이大氣와 土壤에서 吸收한『에너ー지』를包含하지안흔 炭素其他無機物을原料로하여 日光의作用을바더 複雜한有機物을 合成할때에 包藏한太陽의『에너ー지』다 吾人生活에所要되는『에너ー지』의源泉은 太陽에잇고 이것을 運搬하기쉬운狀態로 變化固定식히는것은 植物이다 그럼으로 適當한方法으로 植物體의 成分을 우리體內에運搬하여 酸化分解식히면 그가운데 潛在하여잇든化學的에너ー지를熱、運動等의에너ー지로變케하여 細胞의生活現象을이루키게한다 또 動植物을먹으면 一部分은『에너ー지』를 含有한채로 動物의肉가된다、그럼으로 우리는動物의 고기를먹으면 間接으로 植物을 먹게되는것이다 이러한役割을 植物體及 動物體의成分을 가처 榮養素라한다 榮養素는(大氣에잇는듯炭酸까스)와土壤속에 르는물(水)은少量의 에너ー지는 가지고잇지안흐나 이것이 植物 日光에너ー지를 包藏한 植物의 입(葉)안에서 葉綠素의 光의 作用을바더 含水炭素 澱粉을 合成시킬때에 日光에너ー지를 多量으로 貯藏하엿다가 이것을 攝取한體內에서 分解가될때에『에너ー지』를 發散하여 體溫을保持케하고 細胞의 技能을 營爲케하는것이다

榮養素는 人體에『에너ー지』를 供給할뿐만아니라 生命이發生하는 體細胞를構成하는 物質이다 要컨대 榮養素라는것은 人體內에서 分解되여 熱、機械的에너ー지를 供給하고 不斷히消耗되는 體細胞를 構成할物質이될만한 無害한物質이다 即蛋白質 脂肪、含水炭素、無機鹽類、비타민等이다 이러한 榮養素를 多量으로 含有한것을 食物이라부르고 以上의 作用을 할能力은 업스나 食慾을 增進하고 消化를助長식히는 物質을包含한것을 嗜好品이라고한다 食品과嗜好品을包含한것을 食物이라고부른다



潛航艇을捕獲하는大網

伊太利『미란』市의『에리코、오르난』라고하는技師는潛航艇을捕獲하여서爆沈식힐수잇는珍奇한 그물(網)을發明하여서多方面의注意를 끄을고잇다。

이 그물은 엇더케된것이냐하면 한쪽에는重錘가달니고 다른한쪽에는 浮子가달녀서그것은 바다人속에치면 重錘가달닌쪽을깔어안고 浮子가달닌쪽은 뜨게되나 그것이 海面에낫타나지안는程度로되여잇다。 그러니까바다人속은그물의 防壁이되여잇는데 그다음에하는 設備는 무엇이냐하면 浮水가달닌쪽에다가 아주强烈한 破壞力을가진爆發物을 멧十個나달어둔다。 그러면敵艦이 潛行을할때海面갓가이 떠서오면直接그裝置하여두엿든 爆發物에부드처서爆沈이되고어을속갑히 숨어서을때는그물에 걸녀서 허우적거리는바람에 그爆發物을 海面으로부터落下하여서 爆破되는바람에到底히 免할수업는 裝置이라고한다。

讀者社交室
百五十字로利用萬般

우리네들은 拘碍와 因襲으로因하야 알리어조흘말을 알리지못하고 또 들어조흘말을 못듯는수가 만흘뿐더러 複雜한 人世과 奔忙한 生活속에서 設使 알리고 싶고 듯고 시퍼도 그여시 機會를 엇지 못하는수가 적지안타。 그래서 서로서로의 必要가 交換되지못하고 서로서로의 親近이 도모되지못하는것은 勿論이어니와 심지어는 한번 釋然히옷고 풀어버림만한 일에도 白眼으로 相視하야 한 仇敵의恨을 품는수도 업지 안타。 社會生活을 해가는 우리로서 이엇지 微少한 現象이라고 보아 치울것이랴? 今番本社에서 增面의巨大한 奉仕를 勵行하는同時 讀者諸位의 社交室欄을 設置하야 彼此間 알리고시픈말과 듯고시픈말을 交換하야 드리는것도 決코 그意義가 얏지안타고 自信하는바이다。

本欄利用規定 ◎

▼投稿事項은 求職、求人、學事、圖書物品交換、紹介、問議等事項을一行十五字 十行以內로 簡單히精書함을要함

一、左記의 諸項은 一切揭載를拒否함
1、한 個人이나 團體를 勿論하고 毁謗 中傷을 內容으로한것
2、廣告의 性質을 띄운것
3、風紀問題에抵觸될념려가잇는것

▼紙上匿名은 조흐나 本社까지는 住所姓名을明白히 적어 보내기바람

▼반듯이 朝鮮日報社學藝部社交室係라고 明記해주시기를바람

太陽熱利用의 人工溫泉

文明이 進步될사록 그 原動力인 燃料動力은 漸漸 더必要하거마는 그 熱源을 주는 石炭이나 石油는 無限하게잇는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大熱源인 太陽熱을 어떠케利用할수업슬가?

이러한 見地에서 發明된것이 太陽熱의 人工溫泉인것이다。 이太陽熱溫泉은 相當한 經費를 드려서 完全히 設備만하여두면 언제든지 保溫이 될수잇스니까 비가오든지 눈이오든지 아무關係업시 一年中언제든지 燃料나勞力을드리지안코天然의 溫泉을할수잇는것이다。 이裝置는 熱效率이 非常히좋은데 熱量의九十九『퍼ー센트』까지는 어둘수잇다고한다 (寫眞은 紫外線、라듸움溫泉設置場)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直接問議하시오)

京城藥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限 (京城에受驗者는四月二日까지、福岡에서 受驗者는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日字 自四月四日至四月五日
▲試驗場所 京城同校、福岡、九州帝大農學部講堂
▲試驗科目 化學、國語、代數、英語(又는獨逸語)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二百名
▲申請期限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朝鮮語、地理、理科

晉州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限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朝鮮語、算術、國史、地理、理科

春川高等普通學校
▲募集人數 約百名
▲申請期限 自二月一日至二月十五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二日
▲試驗場所 同 校
▲試驗科目 國語語 朝鮮語 算術 地理 國史 理科

淸州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一百名
▲申請期限 二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朝鮮語、算術 國史、地理、理科

登錄商標

담기침 천식

龍角散의 十大特長

1 痛根原을 根治식혀줌―新舊의病理學을 연구하여서 根本的으로고처줌
2 咽喉를부드럽게함―목구멍속을참으로쾌차케하여줌
3 呼吸을편안케하여줌―숨이답답하든것을곳가란케하야편하게만듬
4 기침을곳개이게함―복용하시면곳기침을가란게된다
5 胸部에의影響을防止함―기침이속히가람으로胸部에고통을주지안는다
6 熱이곳풀닌다―熱이잇스면만중세가생기기쉬우나그것을곳根治식혀준다
7 肺炎갓흔變症을防止함―폐염등만성한중세가생기지안케함
8 肺結核의痕跡이되지안음―變症을 防止함으로써무서운禍根을남겨주지안는다
9 副作用이絶對로업다―더구나 다른약과併用하여도무방함
10 日本最高의 홀몬劑이다―龍角散의 配合藥中에는홀몬劑今嚴香精劑가잇서서 이것이全身에精力을주며徹底的根治의근원동력이되며 더구나 日本最古의 또한기침약중의唯一한홀몬製劑品임니다

龍角散

主効 천식、백일해、감기기침、호흡곤난、기관지가다루、목쉬인데、인후염、페병기침、혈담、홍역기침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岩本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五 電話浪花(67)○八九○番 JII—10

◁▷전도약방에서팝니다

一月二十一日부터三日間 콜럼비아特作全發聲日本版 ますらを全八卷 監督 푸랭크·보자ー기 主演 쪼ー지·뿌렉스톤 全世界를感激케하는미리타리즘의날개는어린이世界에도덥혀잇슴을볼수잇슬것이다 (阿修羅街) パワリイ全十一卷 유나이뎃드·아ー치스쪼社特作品 監督 라울·월슈 主演 우오레스·비아리ー 쪼ー지·라프트 쩌키ー·쿠ー파ー 이映畵一篇에나타나는世界的名俳優인비아리ー、라프트、쿠ー파ー等의三巨星의主演은眞로우리들에게커다란期待를갓게하는것이다 豫告 舊正月一日一月二十四日부터 春香傳 命호다어머니! 七八歲에도戀愛하나 竹添町一ノ 電光3三三 東洋劇場

一月十五日より二十一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松竹ニユース 一、三〇 三、五〇 六、五〇 發聲戀愛豪華版 一、三七 四、二一 七、一七 天保安兵衛 三、〇四 五、五一 八、四九 終演 九時四十五分 押すな押すな、この人氣! 街の話題を獨占する松竹映畵!! 淸水宏監督 戀愛豪華版 上原謙、高杉早苗、齊藤達雄、桑野通子、吉川滿子、日守新一 一家庭敎師とお孃さん、そしてその一家の人々の描き出されるあの手この手の數數、げにほほえましき豪華版! 一犬塚稔作品 天保安兵衛 林長二郞、岡田嘉子特別出演 洋劇專門 浪花館

新春第四週特別封切 當る十五日より常設館大公開新興P·C·L PCL三大名諧笑如諸彥に捧ぐる110 原作『二人の妻』より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中野實氏原作 監督成瀨巳喜男 妻よ薔薇のやうに 千葉早智子、英百合子、丸山定夫。伊藤智子、大川平八郞、藤原鎌足、主演 新興キネマ超弩級時代劇 原作川口松太郞 監督押本七之輔 オール·サウンド版 武藏野くづれ 大谷日出夫、乃松三津枝主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川口松太郞 脚色陶山密 監督曾根千晴 オール·トーキー 兒故の春 伊井友三郞(東都劇壇の雄)特別主演 伏見直江 高津慶子 共演 永樂町 電本二三二一 中央館

一月十九日낫부터每日三回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부터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名畵의要素는이大綸卷에서 FOX社超特作探偵大活劇全發聲 日本版 샤롯크、홈스 監督 우이람、K、하와ー드 探偵小說은風雕編! 映畵化로戰慄篇! 松竹키네마社超特作スポーツ劇 監督 佐佐木恒次郞 凱歌の蔭に 新入社山縣隆第一回出演 江川宇禮雄、逢初夢子、坪內美子、大山健二主演 하ー스、나쇼날社特作스포ー支篇 本壘打王 仁寺洞 電光八三一 朝鮮劇場

一月廿日封切四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젬스·엘·래스키ー作品 白衣行進曲 로레타·영、쪼ー쥐·스트主演 白衣의處女看護婦養成所에울트는靑春의속삭임을 滿天下女性諸氏께 삼가바치는珠玉같은名篇! ◆유니버ー살特作映畵 안자·찬主演 월리암네일監督 八點鐘 海洋映畵의白眉! 두사나이와한女子의이야기怒濤와싸우는壯烈한場面 로로라마! ◆日活特作映畵 池田保富監督 劍雲薩摩歌 澤田淸、浦口新太郞、花井蘭子 澤水藤子、山本禮三郞主演 全鮮第一映畵殿堂 團成社 電光 九九五

黑風 【231】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十五)

「그런것은 [illegible] 어쩌라는 놀
이야 그[illegible] 말에 [illegible]
하는 봉숙[illegible]를 때든 (나무를
아궁이에 미러 너코 부지땡
이로 창순이를 때릴듯이 달려
들나고 하다가 다시 안저서 불
을 헤치면서
「바른대로 말을 하여요 초사
를 밧기전에」
하면서 눈은 부릅뜨고 입은
웃는다
「초사가 무슨 초사여 혁명운
동을 하면서 비밀히 변장하
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바에
초사바들것이 잇서야지」
「홍 혁명운동을 위하야서 비
밀행동을 하는것은 죄가 아
니거든 당당한 혁명가를 치
마끈으로 부뜨러 매는것이 알
고보면 죄인이어든」
그들의 정담은 『유모어』로 화
한다
「그런대 참……」
하는 창순은 쓸든 고기를 마
저 쓸고나서
「선생님이 말이야」
「그래」
「서선생님뿐 아니라 사내들은
그러키가 쉬운가버」
「무엇이 말이야?」
「사내들은 녀자에게……때
라고 하면 조흘까 사내들은
녀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잇
나봐요」
영리한 봉숙은 그말의 의미
를 다 아랏다는듯이
「허허허」 그러치 내가 아까 한
말이 올치 치마끈으로 부뜨
려 매엇다는 말이 내가 섭
적 한 말이라도 용하거든」
「아니 그러케 할말은 아니고
사내들은 그런수가 잇는 모
양이야」
「그야 사내뿐인가 남녀기 일
반이지」
「녀자가 누가 사내에게 빠지
는 사람이 어대잇담 녀자는
피동적인대」
「그런 녀자를 보랴거든 거울
을 드려다 보아요」
「망할것 내가 그런 녀자라는
말이야 제가 리학명이 한테
그랫스니까 남도그런줄 아는
군」
하고 봉숙을 정다운 눈으로
흘겨본다
그말을 듯는 봉숙은 얼골빗
이 조금 변하면서 가벼웁게 하
숨을 내어쉰다 그것을보는 창
순은 자긔의말이 잘못된줄을 깨
다라서 살이 압흠만치 미안하
얏다 우루루 뛰어가서 봉숙의
두 어깨를 잡어 흔들면서
「야! 내가 무망결에 말을잘
못 하얏구나 리학명의 말이
당한말인가 그말을 듯기에 여
북이나 뼈가 압흐겟니 그러
기에 롱담이란아니할것이야 용
서해라」
다시 봉숙의 어깨를 흔든다
「내말을 드르면 용서하지」
「무슨말이나 죽으래도 죽지」
「정말?」
「정말 아니구?」
「선생님을 내가 이번에 모시
고 가도록 한다면 용서하지」
「그래그래 서선생님뿐 아니라
나도 가티 가겟다」
하는 창순은 밥이 넘는 솟
뚜껑을 찬물로 행주질을 치고
찌개를 끌이면서 얼골빗을 고
치고말을 계속한다
「저으른이 우리가 다 아다십
히 혁명의 소질이 부족한것
도 아니고 또는 거기대한 생
각이 업는것도 아니나 단지
나때문에 나가지못하는 모양
인대 그새이에 기회잇는대로
말을 하얏고 또 황선생에게
서 사람이 올때마다 순리로
말을하다가 어떤때에는 내색
까지 내어 보앗스나 도모지
듯지 아니하니 실로 큰일이
야 그러거든 그가 보통사람
으로 일 마당에 나가도 고
만 안나가도 고만이라면 구
태여 권할것도 업지마는 혁
명당이면 다 사람인가 그만한
자격은 실로 천에도 하나만
에도 하나기 업슬뿐 아니라
실은 사억만인 중에도 몃치
못되는 인물인대 일개 아녀
자에게 억매어서 나가지 안
는다는것이 우리나라를 위하
야 불행일뿐 아니라 나로서
는 더욱 미안한 일이어서나
의 성의대로는 권하야 보앗
스나 자기 철학이 완전히선
이로서 듯지아니하니 이번에
는 우리 둘이 협력을 하야
서 가티 나가도록 하야 봅
시다」
하고 결심잇는 표정을 나타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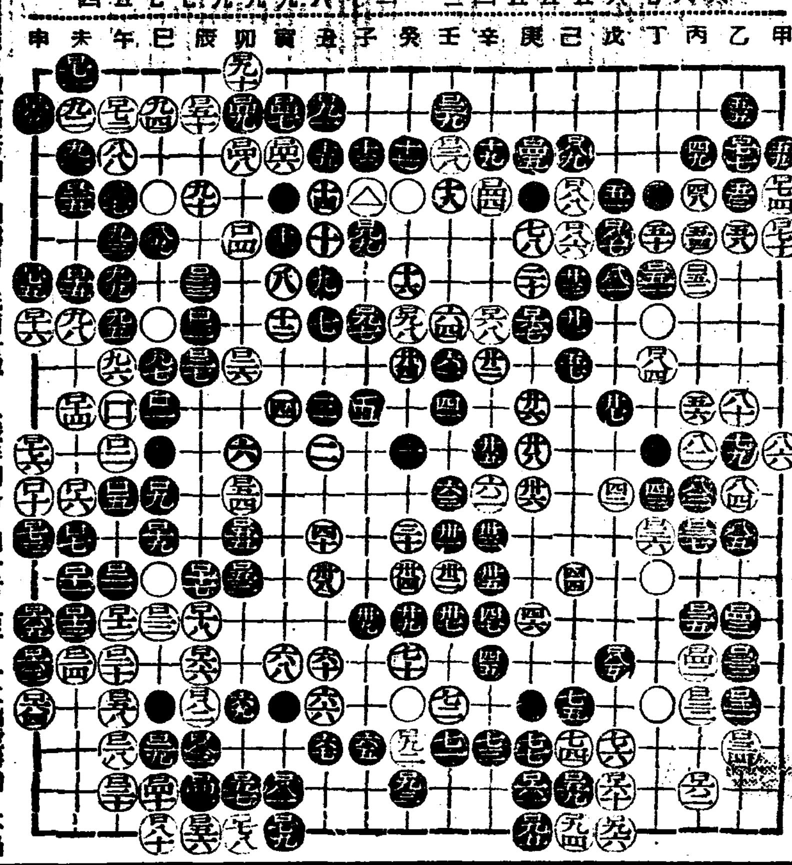
百五十字써-비스 讀者社交室

▲振替 京城口座의三字以內의 것讓渡하실분은本社로照會하시압 (慶山局私書函二號)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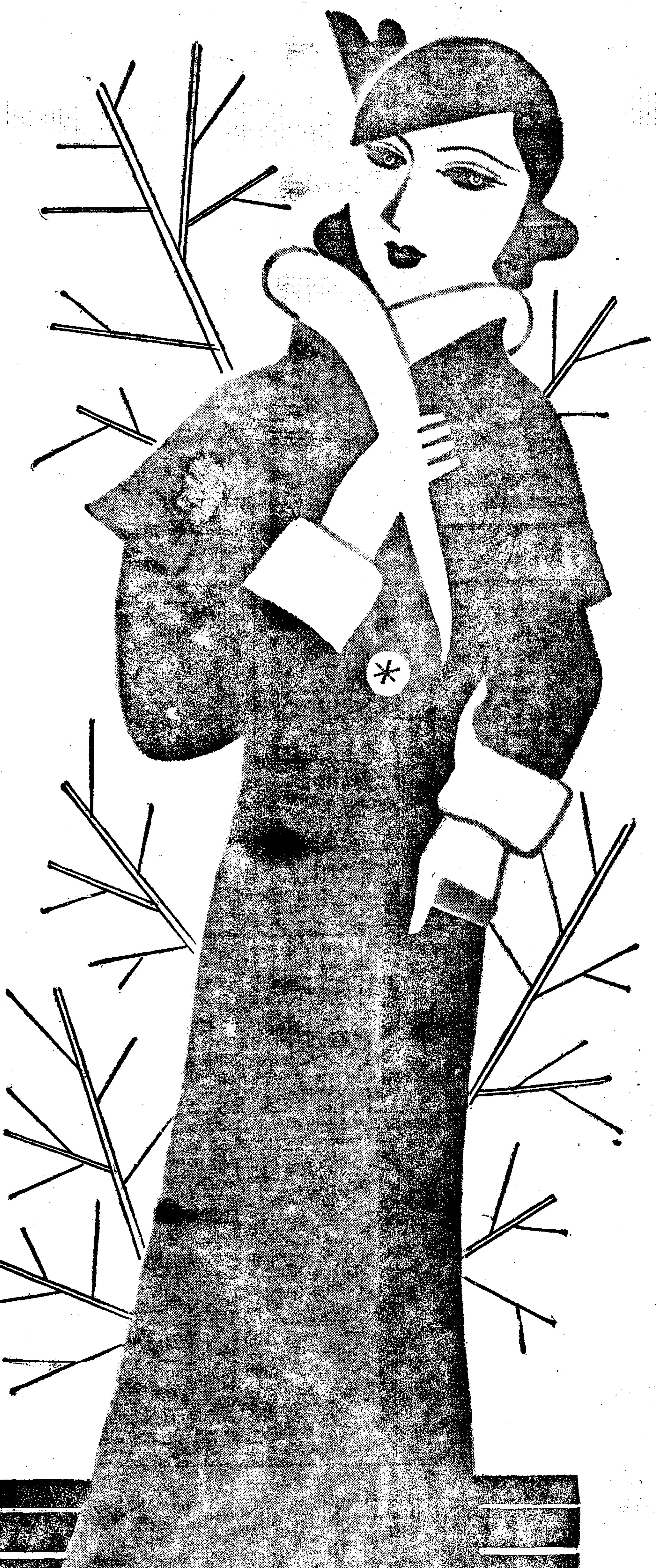
白 蔡極文
黑 丁奎春

○一八一 寅의十八
○一八二 辰의十六
●一八三 辰의十七
○一八四 丁의八
●一八五 戊의十五
○一八六 己의五
●一八七 戊의五
○一八八 己의四
●一八九 己의三
○一九〇 卯의一
●一九一 丑의二
○一九二 癸의十七
●一九三 癸의十八
○一九四 己의十九
●一九五 庚의十九
●一九六 戊의十九
●一九七 子의七
○一九八 癸의七
●一九九 子의五
○二〇〇 子의四



◆對局者談 敵對雙方에 關鍵이 既備하고 息戰時期가 到一함으로 一二端爭事에 不過하다 白은 己의四 壬의十七 黑은 子의七 子의五로 或先 或後에 順序行進하니 別無點筆覓頗之處矣라 下回가 蔽錯 엇더할는지 續次立俟하노라

젊음파自然美를爲하야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白粉이안밀이고 現代用으로最完한理想的바늬싱、크림!

特製20전
30전
50전
70전

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10CD A

→回効散

齒痛과 頭痛에

効力이速하고諦觀잇는回効散은 神經痛에도가장特效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最近에는평장하게팔인다.

『理論보다證據라니 한番試用하시라』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はれやか

그런데힘드러 問題도 술적술적 마음대로

¥0.30 ¥0.50 ¥1.00 ¥2.00

マルキン醬油 (마루킨간장)

斷然빗나는 이마ー크 이간장!

香川縣小豆島 丸金醬油株式會社

舊曆年末을압두고 土兵團最後發惡
監禁、拉去、强奪等가진行悖로 移住同胞極度로恐怖

【長興】십사도구고량자(十四道溝高粱子)부근에 잠재하고잇든 토병단(土兵團)일대사십여명은 최근사일오후칠시경 십이도구도천(十二道溝溝泉里)우가동가주 이주동포 김길순(金吉順)외 삼명을 합하여 식량품전부를 약탈하여 동지동포오명에게 운반식혀가지고 돌아갓다 십칠도구대북두(十七道溝大北斗里)에 잇든 토병천흥(天興)의 일대사명은 지난십칠일 오후네시경 팔도구외보둔(八道溝外堡屯)목재 채벌작업소를 습격하여 정심을 강요하여 인부 동포재소 언부 십칠명을 위협에 감금하고 약 세시간동안이나 동가에잇든 아편전부를 강탈하엿스며 오는 구력말까지 백분오포 도록철근 아편에백근을 제공치안흐면 모다 죽여버리겟다고 협박하엿다 십칠일 오후오시 십삼도구 강성(十三道溝南城)리가동(李家洞)의 부근에 토병 점삼성(占三省)의 일미 이십여명이 나타나서 통지를 통행하는 팔도구 하승덕(八道溝下?里)조선인 유창식(劉昌植)등 수명을 포박감금하고 소지금 이십오원여를 강탈한이후에 다시 천토수주일을요할 쪽행을하엿다 이러케 음력연말을당하여 식량거리가 극히궁핍하여진 토병대들은 필사적으로 동포들에게 박해를함으로 그생명재산에 극히 우려된다고한다

北靑某富豪家에 戰慄할脅迫狀送付
多額의現金을某處에提供하라고 咸南警察部緊張搜索

【咸興】모처정보에 의하면 수일전함남북청군(北靑郡)모회사사장동유재일부호인 방모(方某)의 집에 수천원의 현금을 모처에 제공하라는 전율할만한 협박장(脅迫狀)이 도달하여 함남도경찰부를 위시하여 소관북청서에서 방금긴장하여 그범인수사에 맹활동중이라하는데 혹은 배후에 사상적 계통이나 잇지안는가 주목중이라한다

多年懸案中의 公會堂遂竣工

【方峴】평북귀성군 방현시(龜城郡方峴市)에는 지금까지 집회할만한장소가 업서 일반시민은 다년간 유감으로생각하고 내려오든바 작년칠월에 당지 장룡관(張龍官)씨외 지방유지의 발기로 긔성회를 조직하고 촉성중이든바 민치원녀사(閔致源女史)의 이천원희사금과 지방민의 의연으로작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야 근간완공을 보앗다는바 총공비는 이천오백원이라한다 잔금으로는 비운에빠저잇는 방현유치원(方峴幼稚園)원사를 금춘에신축하려고한다

…하리라는데 의연자 씨명은다음과갓다 ▲二千圓閔致源 ▲三百圓 … 二百圓 … 百五十圓 … 三十圓 … 二十圓 … 十五圓 … 以下略

◇…竣工된 南市公會堂

陽化駐在所員活動 又復靑年을檢擧
事件進展을極注目

【陽化】함남북청군양화면 양화주재소(北靑郡陽化駐在所)에서는 지난번말을 주하야 동면양화리에서 리근천(李根千)외 오명을 검거하여 소관북청서에 연쇄조중이든바 돌연 지난 십칠일에 이르러 동면 양화리백시룡(白時龍)(二)을 검거하는 한편 기타를 수색하야 불온서적 다수를 압수하엿다는데 사건내용은 국비밀에 부침으로 알수 업스며 압호로 사건의 확대될가 주목된다고한다

長津地方酷寒 零下三三度五

【長津】최근장진지방은 련일치위가 계속하고 잇는중 십육일아침 황초령(黃草嶺)에는 령하삼십삼도오를 나타내여 『가소린』차의 운전도 열지는 못하엿다고한다

延安溫泉公普校 學級增設運動

【延安溫泉】황해도연안온천에서는 온천의발전을따라 향학열이 팽창하여감으로 현재온천공보교의 학급부족으로 인하야 지원아동수가 모집아동수보다 매년초과는 물론 입학지옥을 면할수 업는아동이 만흠으로 일반시민들은 긔성회를 조직하고 지난 십사일 동교구내에 모히여 동 기성회장 홍보식(洪寶植)씨 사회하에 학급증설에 대한 대책을 로의한결과 소요경비를 부담키로하고 각위원을 선정하여 운동중이라는데 학부형은 물론 일반유지의 다수한조력을 바란다고한다

延吉縣朝鮮人民會 救濟金品募集

【延吉】당지조선인민회에서는 지난양력세말부터 시내 이백여호니되는 극빈자의 구호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하고잇는중 신년명합교환회의잔여금 백오십여원과 민회직원의연밀생여금 일할씩을떼여서 수십원과 당지령목보교장(鈴木普校長)삼십오원의연이 드러왓는데 구력정초도 닥처왓스므로 민회직원과 간장이 총동원하야 구제동정금을 모집중이라는데 시민유지는 만흔동정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舊歲末에活佛들 貧者에밥을주어

李敎植氏美擧

【平壤】평양부외 남형제산면(南兄弟山面) …

牙山의兩特志 貧窮民에金品

【牙山】충남 아산군 온양온천(溫陽溫泉)에 거주하는 경남철도회사전무취체역(京南鐵道會社專務取締役) 유지 리교식(李敎植)씨는 동면세밀에 굼주리는 빈민을 가엽게생각하야 지난십칠일에 주정비서(酒井秘書)를 명하야 금일봉 서천면(西川面)재경리면(在京里面)배산면(龍山面)남평재산면등 네면내의 궁민백오십호에 대하여 백미(白米)한말과 북어(北魚)이십개식을 배부하여음력설을 온양서에 전달하엿다하며 동온천려에잇는 [illegible]주인도 현금이십원과 의지가엽는 걸인에게 일힐의복다수까지를 전달하엿다는바 이를 바든 온양서에서는 지난십삼일에 군내적빈자에게 일제히 분배하엿다고한다

濁酒獎勵對策으로 景品附大賣出

【統營】일반 조선인가정에서나 로동자측에서는 탁주가 아니면 못살듯이 써오든 탁주나마 근래에 와서는 술로서 망하랴는 현상인지 고급으로 정종, 약주 소주등이 만히 사용케되니 탁주제조의 수량이 점점 감소되어가는 현상이라는바 이 대책으로 통영군 고성군의 각양조장을 통영주조조합에서는 구역으로써 오는 이십이일부터 이십륙일까지 탁주경품대매출로 탁주일승사는데 추첨권 일매식 진정한다는바 일등에 황소한마리의 삼매이고 이, 삼, 사, 오등까지 잇다고하며 추첨은 삼월일일 조합사무소에서 집행하고 경품교환은 삼월일일부터말일까지라고한다

江西郡龍德에大火 草家十六間全燒
正租百五十石도同時에燒失 損害額은三千餘圓

【江西】지난십륙일오전네시경에 강서군 증산면 룡덕리(江西郡甑山面龍德里) 김상화(金相華)씨집 『벼나가리』에서 원인불명의 불이나서 『벼나가리』를 전소하고 불길은 김상화의집으로 옮기며 김씨의전전부를 태운후 엽집 김지만의집까지 초가사동십륙간을 전소하엿는데 그중에는 벼가일백삼십여석이 전소되고 도야지 한머리와 닭도 수십마리가 타죽엇다는데 다행히 인명에 손해는 업섯스며 손해액은 아직 자세히 알수업스나 약삼천원이라하며 발화원인은 조사중이라고한다

農校基金으로 百圓을喜捨 朴學泳氏特志

【南原】다년간 숙망으로 내려오든 남원농업전수학교(南原農業專修學校)는 남원읍도룡리(南原邑桃龍里)에다 위치를 정하고 공사가 착착진행중이므로 금번사립일신학교부흥에는 계교를 하기로되엿다함은 본보에 누차보도한바이어니와 실리는기금(基金)조달에잇서서 지방유민의 부담중 약 …

永登浦支局主催 〝新劇밤〟第二夜盛況

【永登浦】궁민동정을 목적하고 본보영등포지국이 주최하고잇는 신극과음악가의밤은 연일초만원의 대성황으로 진행되고잇는데 이십일에는 청춘좌일행의 남녀배우이십여명의 열성잇는연극으로 장내가자못 도취되는동시 동정금도 속속환지하야 예상이상의 조흔성적을 보고잇는터로 당일연출된 동정금은아래와 갓다하며 금이십일에는 특히 시민위안을 겸하야 입장료도 특히 대중적으로 저하하야 꼭올만으로 한다는것이라고한다

▲金二十五圓永登浦演藝館 ▲金二十圓李喜仁氏 ▲金十圓式中川食堂朴命善氏 中上德氏 ▲金五圓式 尹杜善氏 沈鍾秀氏 李宗宇氏 永登浦田園所在和氏 京城金松額氏 李紅根氏 金森巾月氏 鄭鐘麟氏 ▲金三圓式 大塚宗三郎氏 徐相麟氏 玄得榮氏 金鎭石氏 大林組永生旅館 元珪常氏 金在鉢氏 ▲金二圓式 李萬春氏 二原正幸氏 李化永氏 元鶴常氏 高顯善氏 李黃光秀氏 李鍾夑氏 永興瑪陽川 梁濟金鼎醫院 ▲金一圓五十錢 ▲金一圓式 沈在漢氏 金寅洙氏 韓泰善氏 李壽山氏 李漢龍氏 南福成氏 朴瑞玉氏 南興기氏 李明海氏 ▲金五十錢 柳浩善氏 金時林氏 洪鐘星氏 黃俊性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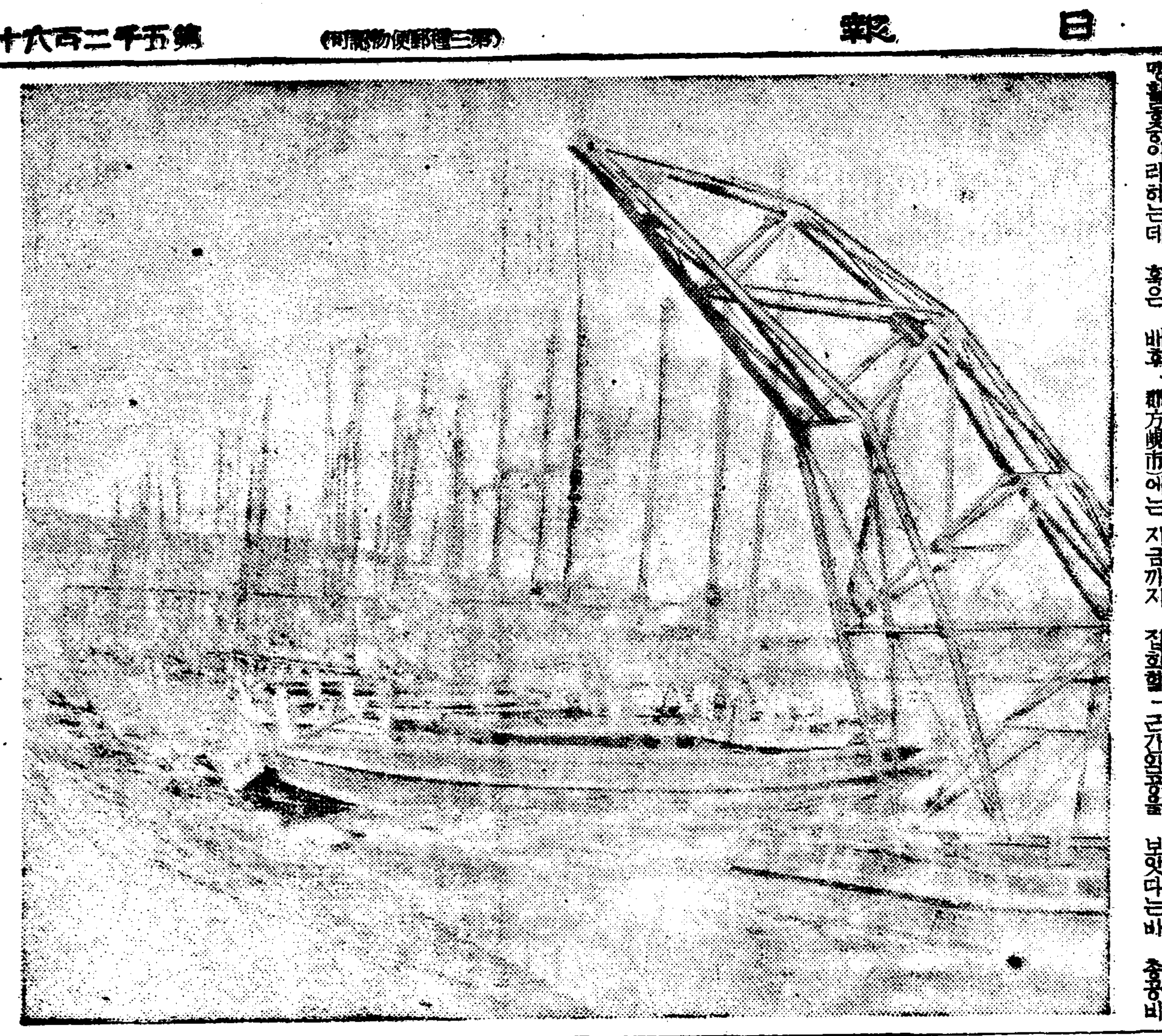
經費를自擔 無産夜學經營
四個年間繼續

【瑞山】충남서산군팔봉면양길리(忠南瑞山郡八峰面陽吉里) 량승환(梁承煥)(二七)군은 허다한 무산문맹이 배움에 목말라 어둠의 길에서 허매이는것을 보고 절실히 늣긴바잇서서 경제에 자유스럽지못한 처지로 거금사년전인 소화팔년칠월에 종경비독당으로 야학원을 설치하고 아래사개성상을 하로가티 계속하야 오는중이라는데 매년 극빈자또는 학령초과자 등남녀십오명내지 이십명식 모집하야 일년간식 정성으로 공부시켜 보통학교 사학년보결시험을 치러 합격되게하며 유지비의 자담은 물론 아동들의 소모품까지 일체를 독담하야 온다는바 그공적은 과연위대하다한다

寶城 讀者慰安映畫會
△時日 一月二十二日夜
△場所 寶城劇場
◇入場無料(但下足料十錢)
◇主催 朝鮮日報社寶城支局

鎭南浦의치위는 開港以來初記錄

【鎭南浦】금번겨울추위는 어느지방이나 신고롭지안흔게 훨씬 혹한이여서 여러가지로 사고를만히내이는모양인데 진남포의겨울치위도 개항이래처음보는혹한으로 인하여 삼사천석이나 방금적조되여 대소동화고잇스며 범선들도지못하든정교선까지 사방에서 모혀드러 수천톤의괴선이 삼사십석식이나 표류하는근대에 드문현상을 내여고잇스나 어와가른것은 멧해에한번이나 잇슬업서요 때구나 돼병선에비하게되엿스니 족히문제가업서 완전한활동만히하게되면 부동항(不凍港)으로 자랑하거에 부끄럽지는 안흘것이나 방금진남포에안은 레빈에보지못하든 異變으로 각방면에서 크게우려하는중이다


◇寫眞…嚴寒凍氷으로 動之不動하고잇는 木船들

異次頓의死 【77】
李光洙 作 / 金奎澤 畫

봄이 되엇다. 이차돈은 맥나물을 캐려 산으로 돌아다녓다. 놀지아니한 산에서는 구렁소게 웨이 울르는 별과이 바라보엿다. 이차돈은 나물을 찾아돌아다니다가 문득 종달이소리를 들엇다. 저번가튼 안개가 하늘과 산을 게 덥고도 따뜻한 볕에 어 몸을 간지리는 봄날에 어듸서 오는지 모르게 들려오는 종다리 소리는 잠깐 이차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엿다.

백국새 소리에, 맥비둘기 소리에 어지려우려하는 마음을 여러번 뭇찻든 이차돈이언마는 종달의 소리에는 저항할수업는 유혹의 힘이 잇는듯하엿다.

이차돈은 나물 북구니를 든 채로 멍거니 소리오는 편을 바라보앗다. 앞을 보면 뒤에서 오는것갓고 뒤를 보면 또 압헤서 오는것 가탓다.

눈따라 유난히 눈에 띄우는 꼿들의 노른빗, 붉은 빗이며 혹 숙하게 풍스러운을 먹음은 흙냄새, 동동한 봄ㅅ바람의 간지러움—이런것들이 모도 이차돈의 마음을 어즈러이 돌엿다.

『아아 파순(波旬)의 유혹, 시험!』

하고 이차돈은 나물 캐기를 그치고 절로 뛰어 나려왓다. 시님의 겻헤 잇스면 마음이 든든할 까닭이엇다.

이차돈이 예상보다 일즉 돌아오는것을 보고 금동(그야말로 백봉국사엿다)은 뫼에 안저서 졸고 잇다가 눈을 번쩍 뜨며,

『엇재 어느새에 오느냐, 빨서 나물 다 캣느냐』

하고 비틀거리며 웃어낫다.

이차돈은 나물 북구니를 백봉국사의 겻헤 노흐며,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이차돈은 목에 건 염주를 세어서 흐터지랴는 마음을 모오려하엿다.

그러나 신라ㅅ서울에서 듯던 종다리 소리—그것은 이차돈에게 여러가지 옛기억을 가져왓다. 그중에는 검산(金蘇山)압때의 달님과 뫌님과 함께 종달의 소리를 듯던긔억도 잇섯다.

달님! 언제는 서로 떠나지 삼년이다. 소식조차 끈어진지 삼년이다. —어러케 생각하면 이차돈의 가슴이 설레고 숨ㅅ결이 커졋다.

이차돈은,

『번뇌야 가거라! 나무관세음보살!』

하고는 종달의 소리를 아니들으랴고 수풀ㅅ속으로 걸어들어갓다.

삼년ㅅ동안 잠은 마음을 노하서는 아니된다. 삼년ㅅ동안 닦은 도를 깨트려서는 아니된다.

『인생은 괴로움이오 헛된것이오 덧업는것이오 내라는것도 업는것이다』

『잇다고 보는 모든것은 다 허망한것이 아니냐.』

『꿈업는 번뇌를 다 끈고지고』

이러한것을 생각하야 가슴ㅅ속에 얼어나라는 번뇌를 누를ㅅ길을 끄려하엿다.

그러나 귀에 들어오는 백국의 소리와 종달의 소리, 오

『시님』

하고 국사의 압헤 합장하엿다.

국사는 물끄럼히 이차돈을 보면서 마조 합장하고,

『웨? 무슨 일이 생겻느냐?』

하고 도로 뫼에 안는다.

『시님 소승, 나물을 하다가 종달의 소리를 들엇소.』

『옹, 종달의 소리!』

하고 국사는 주장으로 퇵ㅅ마루를 한번 치며,

『이 소리와 다른것이 잇더냐』

하고 이차돈을 본다.

『종달의 소리를 들으니 심서가 산란해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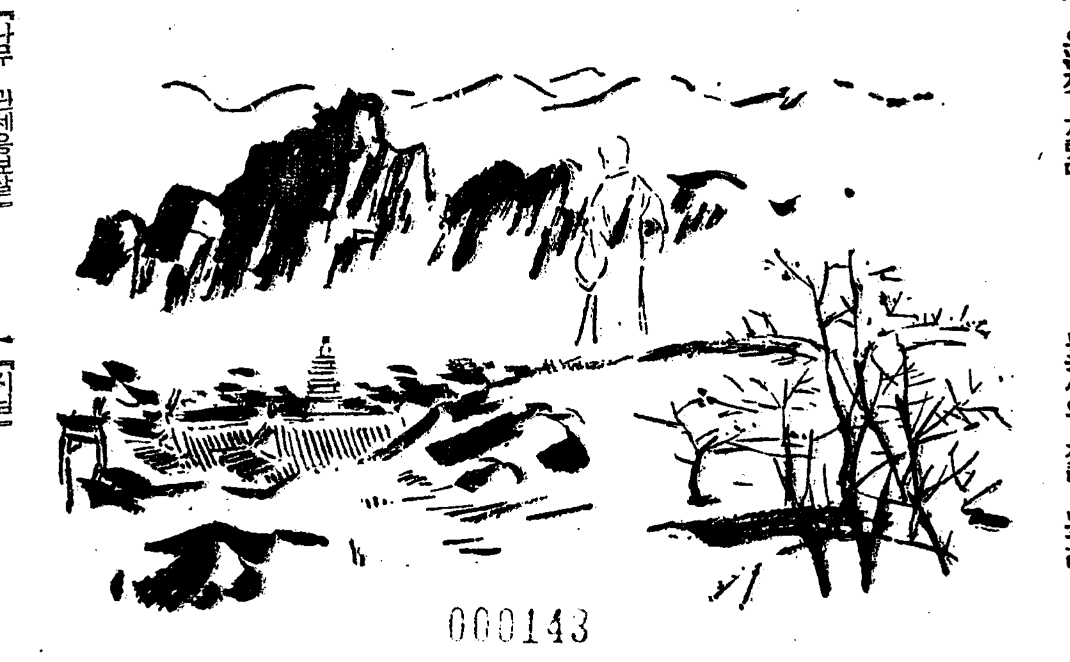
하고 이차돈은 한숨을 쉬인다.

『옹 네 마음에 차별이 일어낫고나. 이차돈아, 종달의 소리나 방귀ㅅ소리나 매한가지니라. 천하절색의 살빗이나 풀빗에 썩은 개똥 빗이나다 매한가지니라. 오직 네 마음의 차별이 꿈이니라. 그것이 다 헛된것이니라. 업마를 지나면 절색의살이나 개똥이나다 매한가지 흙이 아니냐 한종 터 들여다보면다 매한가지 공이니라.』

『시님 소승이 시님압헤서 삼년수도를 하엿건마는 종다리 소리에 마음이 산란하니 이러고 도성불할수 잇스리까.』

『물결이 자면 도로 물 제빗이나냥 나물이나 살아라』

하고 국사는 다시 눈을 감고 좃기를 시작한다



開店一周年記念大賣出 昭和十一年一月二十日부터 昭和十一年二月二十日까지

藝術家싸인데―・오케―・포리도―루・빅타―

빅타―藝術家싸인데― 一月二十三日 正午…五時 午後七時…九時 金福姬

포리도―루藝術家싸인데― 一月二十五日 正午…五時 午後七時…九時 鮮于一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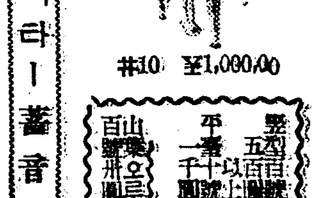
오케―藝術家싸인데― 一月二十二日 正午…五時 午後七時…九時 李蘭影

開店一個年記念大賣出을兼하기爲하야 今般右記各會社後援으로 빅타―포리도―루오케―레코―드의各歌手의特別出演을求하야 藝術家自筆의싸인을하야드립니다

鍾路二丁目 山口樂器店鍾路支店에서

大賣出期間中은어떠한商品을勿論하고 記念品을進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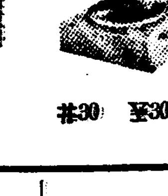
山葉피아노



#10 ¥1,000.00
平臺 一千圓以上各種 / 竪型 五百圓以上各種具備

빅타―蓄音器
手提型 三五圓、五十圓
箱型 三五圓、五十圓 六五圓、八十五圓 百圓
外電氣蓄音器 ラヂオ兼用 三百十五圓以上各種具備
빅추로라 J ト35 ¥35.00

포리도―루蓄音器
ラヂオ兼用 電氣蓄音器 四百五十圓 意匠優美…… 價格低廉……



#30 ¥30.00

오케―蓄音器
箱型 一一〇 一三〇 …
#1,200 ¥50.00

只今大流行인 기타―手風琴 바이요링・만도링 其他各國吹奏樂器 各國絃樂器 諸樂器附屬品一式 各種樂譜書籍
在庫品豐富
型錄進呈

恒常…音樂과거래를보내는
京城鍾路二丁目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3)四八番 振替京城二二七六六番

賀正 元旦

車輦館

平北朔州郡扶西面登串洞 三星金鑛事務所 代表者 鄭禹泳

京義線車輦館 崔昌立

京義線車輦館前 貿易商 曺熙洪商店 電話(ソ)又ハ(ソウ)

京義線車輦館 吳在殷

和信車輦館連鎖店 主 黃延秀

京義線車輦館 濟世醫院 醫師 金[illegible]濟

朝鮮京義線車輦館 永成釀酒商會 電話一二 振替口座二二五九四番

車輦館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京義線車輦館 司法書士高慶三事務所

京義線車輦館 貿易商 金應珪商店 千代田生命代理店 共同火災代理店

京義線車輦館 有志 金明贊

京義線車輦館 李基俊自轉車商店

奉天

奉天小西關北小什字街 各種綢緞 海産物 東順泰皮店 主 金錫鉉 滿電話三八四〇番

奉吉線山城鎭 旺淸門普通學校

奉吉線山城鎭 東興精米所 電話二十六番

奉天大西城門外電車站西側 德盛源皮店 電話二五一八番

錦州大馬路夫助祥行

錦州省東門外十字街 御料理 金泉館 主 朴[illegible]愛 電話五二番

錦州省東門外十字街 御料理 金海樓 主 崔[illegible] 電話三二九番

錦州省東門外十字街 大阪屋クリーニング 金[illegible]鉉

熱河省平泉縣中央大街 [illegible]信公司

仁川

京仁府 醫師 神部正雄 電話一〇番

仁川外里五一 池宗憲

仁川新栗木里 張仁秀

議會解散과 財界影響
目前波瀾을 難免?
總選擧後政界歸趨豫斷不許나
急激한 衝動은 疑問

【東京電話同盟】 事實議會解散이 斷行되고말엇다. 이번解散은 豫想되고잇든바임으로 財界各方面에는 그影響을 相當히 나타난바 第十六日 軍縮會議의 脫退 北中問題의 未解決, 財政問題의 急迫等財政活動을 制約하는 要素가 複雜함으로 目前 相當한 波瀾을 惹起하리라한다 이런때 議會가 解散되엇슴으로 財界는 心理的으로도 多少의 動搖가 豫想되다 그러나 이번의 解散은 政界가 順調로 가다하드라도 이미 總選擧의 時期에 當面하얏섯슴으로 다만그時를 좀빠르게 하엿슴으로 直接 財界에 急激한 波瀾이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또 總選擧後의 政界에 對하야서는

勿論

豫斷不許하나 或은 岡田內閣이 눌러안을는지도모르고 가령內閣이 更迭되다하야도 다음에 組織되는것은 擧國一致內閣이 豫想되야 어느便이든지 財界의 基調에 急激한 變化를 惹起할 政策은 取치안흘것이다 即 依然 軍需인플레政策은 續行되야 軍需工業部門의 活況等이며 特히 産業界는 好調를 呈할것이다 高橋藏相은 軍縮會議에서 脫退되엇스나 海軍의 競爭은 아직생기고 또 增稅問題論을 依然 固持하고잇스나 軍縮會議脫退는 現在의 國際情勢로보아 必然的으로 軍擴의 傾向을 助長하는것으로 軍事豫算은

膨脹

은할지언정 減額되리라고는 생각할수 업다 따라서 軍需工業部門의 好況은 當分保證되리라고 보인다 그럼으로 財政의 膨脹, 赤字公債增發과 이消化難의 念慮等金融界를 憂慮케하는 材料가잇고 또 赤字公債 漸減方針의 堅持라 增稅案도 撤回하야 올려야 다 그러나 增稅에 對하야서는 高橋藏相도 言明하는바와 가리 지금곳 實現하긴 어려운 事情에 잇슴으로 實現하기 까지에는 于餘曲折을 經할것이다 또 六十八議會에 提案키로되어잇든 營業收益稅案은 臨時議會에 提案될터이며 또 이미 編成된 明年度豫算案은 從前과 가리 今年度豫算案 追加豫算으로 臨時議會의 承認을 어게될것이다

前年度의 豫算踏襲
清水日銀副總裁談

議會가 解散되엇스니 新豫算은 成立되지안코 따라 前年度의 實行豫算을 踏襲할것이다。그리고 其他의 必要한 經費는 다시 臨時議會에서 協贊을求할것이다。그러나 이結果 赤字公債漸減의 鐵則이 깨어지는 안흘것이다。何故요하면 前年度豫算을 그대로 踏襲하야 行할것도업고 一方 自然增收가 漸次 顯著하게 되엿스니 大體 新豫算에依한 六億八千萬圓程度의 赤字公債로 되여매갈것이다。

金支拂遲延
明石第一銀行頭取談

議會解散으로 問題되는것은 來年度 豫算이 어떠케될가하는 것인데 最近 大藏省側으로부터 들은바에 依하면 豫算遂行上 全然 支障이 업다한다 即 解散結果 前年度豫算을 踏襲하게될터인데 不足額은 來特別議會에서 追加豫算을 承認하면 될것이다 勿論 多少 遲延되리라 政府의 國庫金支拂이 좀 늣더라도 金融界에는 거이 無影響할것이다。

解散은影響稀薄
藤原王子製紙社長談

議會가 解散되엇다하드라도 財界 就中 産業界에 特別한 變化가 이러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今年의 議會는 順調로갓다할지라도 이미 改選期에 當面하얏섯고 또 再開後解散되리라고 豫想되고 잇섯슴으로 影響은 이미 織入되어잇다고 할것이다 議會가 解散되엇다고 이러한 일로 急激한 變化가 이러나게될 理는 업다 나는 特히 財界의 前途에 對하야서는 樂觀論者로 따라 今年의 財界就中 産業界는 依然好調를 持續하리라고 信한다

政策은無變化
三井銀行萬代常務取締役談

議會가 解散되엇다하드라도 財界 特히 金融界에의 影響은 極히 적을것이다 即 選擧費用 소래기노픈 이지음 選擧費用도 三, 四千萬圓의 動하는 程度일것이고 十一年度豫算이 不成立되어도 十年度豫算을 踏襲하고 追加豫算으로 組替하게될것임으로 豫算不成立에依하야 金融界가 重大한 變更을 보리라고는 생각되지안흠으로 金融界는 順調로 經過하리라고 보인다

明年度朝鮮豫算
前年踏襲編成
緊急한것만은追加豫算으로
諸事業一朔餘遲延

今日 議會는 再開劈頭에 마츰내 解散을 보고말엇다。이날總督府側에서도 局課長以下 一種의 興味를 가지고 三時頃에 解散與否의 命令이 내릴것을 豫想하고 잇섯다 解散이 되엇스나 新年度의 豫算은 果然 어떠케 될것인가가 注目을 끌고 잇는데, 財務局에서는 前年度豫算踏襲(十年度)에 依하야 實行豫算을 編成할것과 그餘의 緊急한것은 追加豫算으로 臨時議會에 提出할 準備가 完了되야 解散되엇스나 慌忙할것은 업다는 態度이다 即議會 解散에依하야 從來의例대로하면 二月下旬頃에 總選擧가잇슨뒤 四月下旬에 臨時議會가召集되고 約二週間의 會期를 지나서 五月中旬頃에는 豫算이 公布될것임으로 그 實際에잇서서는 諸事業이 例外보다 約一個月半遲延될뿐으로보고잇다 其間一個月餘라도 느저서는 안될 事業에는 多少不便이잇슬터이나 別般의 支障은업스리라고한다 그러나 臨時議會에서 果然 現內閣이 그대로政權을 가지게될것이냐 그러치안흐면 政黨內閣이 들어설것이냐 하는것은 財界一般의 큰注目거리이고 또朝鮮側으로서도 關係가크나 爲先은 政黨內閣이 成立될情勢는아님으로 大體로는 現內閣의方針에 大差업는 擧國一致內閣일것임으로 總督府 豫算面에는 더욱別支障이업슬것으로 觀測되고잇다

自給肥增產計畫
西北朝鮮에注力
二十五億貫을目標

第二次自給肥增產計畫은 第一次에이어서 農林局原案은 三千二萬圓의計畫이엇스나 豫算成立까지의査定으로 十六萬八千圓으로 削減縮少되엇다 事業은 十一年度부터 十個年의計畫으로 自給肥增產二十五億貫을 目標로할것으로 施設은

一、綠肥增產補助=初年度八千三百町步로 反當四十錢補助
二、臨時指導員의設置
三、講習會의 開催

等이오 第一次計畫에 準하야그 擴充을 計圖할것으로 特히 第二期計畫으로는 主力을 西北朝鮮에 集中키로되엿다

滿洲國의 土地制度
目下準備進行中

【新京二十一日發同盟】 國籍法과 한가지로當面한 滿洲國의 重大國內問題로되어잇는 土地制度의 確立에對하야 滿洲國政府는 昨年八月以來 土地制度調查委員會를 組織하고 五個年計畫으로 着着調查를 進行中인데 地籍法設定에 關聯하야 重大關係를 가진 外國人의 商租權處理에 關한方針은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一、在滿日本人은 治外法權撤廢와 重大關係가 잇슴으로 右
一、在滿中國人에對하야는 國民權擴張과 倂行하야 處理할
政府가 滿洲國을 承認한뒤 考慮하기로함
一、其他의 外國人은 旣得權益을 侵害치안는한 考慮하야 處理함
一、無籍國人(白系露人, 一部朝鮮人)에對하야는 目下適當한 對策을 考究中
一、宗敎團體의 財産處理도 考慮中
一、蒙地處理는 封建的機構를 近代的機構로 改造하게슴으로 蒙古人에게 影響이 捗히 만흘점으로 그點을 充分 考慮할 必要가잇다

土地制度調查會는 今年中으로 在滿日本人에 對한 問題及 蒙地對策을 決定하고 다음其他의 諸問題에 及할 豫定인데 新土地制度는 康德八年度(昭和十六年度)頃부터 實施되리라고한다

中國의銀貨는
世界市價와同轍
◇…畢竟平衡稅는零

【上海電話】 中國의 銀輸出平衡稅는 昨年末 倫敦銀塊市勢가 落潮에轉한以來 漸次引下되엇섯는데 去十八日은 倫敦銀塊가 十九片으로떠러저 一九三四年 五月以來의 低價에 達하얏슴으로 銀元을英貨一志二片半으로 計算하면 이內外銀貨의値差는 全혀消滅되어 中央銀行發表의 平衡稅는零으로되어 中國의銀貨는 世界市價와 同轍로되엇다한다

註=平衡稅란것은銀流出을防止키 爲한稅金이니 每日 午前一時半에 發表된 中央準備銀行의 發表市勢에銀輸出稅一割을 加해도 오히려 그前日의倫敦銀塊市勢의 引値에 比하야 下鞘에잇슬때는 이價差를 平衡稅로하야 政府는銀輸出者에게課稅하는것이다

中旬米移出增加
今月中旬의總數量

【廿一日總督府發表】 一月中旬의 米移出은 卄九萬一千百六十二石으로 比前年七百同期 一萬七千八十二石增 十一月以後의累計는 三百十六萬五千八百五十四石으로 比前年同期 十九萬四千二百二十五石의增加를 示하얏다

粟輸入도增加

一月中旬 粟輸入은 四萬四千六百五十七石으로 前年同期 二萬七千六十七石에比하야 一萬七千六百七十七石이 增加이며 一月以後累計는 二十二萬七千八百四十石으로 前年同期 二十三萬六千九百二十七石에比하면 九千八十七石의 減少를보앗다

▲米輸移出高 (安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 十二月中正誤 [illegible]

正租檢查
中心議題
米穀硏究會에서

米穀硏究會에서는 卄日午後五時半부터 銀行集會所에서 今年最初의 總會를열고 三井幹事長外會員 三十餘名이 出席하야 正租檢查의 精米業者에게준 影響 各地의正租出廻 減少狀況과 그原因을 中心題目으로 懇談한外 朝鮮米點運賃의 實情에對하야 鳥越仁川穀物協會理事, 小山大阪商船京城出張所長等으로부터 各各意見을 交換하고 同午後九時散會하엿다고한다

朝鮮米의 運輸協議
來月十日로延期

京濱移入商組合에서는 卄五日 東京에 船會社와 朝鮮內 荷主를 불너가지고 朝鮮米運賃과輸送에 關하야 協議會를 열 豫定이더니 仁川, 群山의 兩港荷主가 不參加를 表明한 事情도 잇서 協議會를 來月十日로 延期하엿다 船會社에는 아즉 何等 正式의 招請狀이 안왓스나 右協議會에는 큰 期待를 안가지며 運賃問題의 前途는 依然 不明瞭하다고한다

北朝鮮三港經由
前月輸出入貿易

【圖們二十日發同盟】 在圖們滿洲海關調查에 依한 北朝鮮三港經由十二月中의 輸出入貿易件數는 아래와갓다

▲輸入件數=淸津一、六二〇件 雄基二八八件 羅津二一件 圖們一、六二三件
▲輸出件數=淸津七五三件 雄基四七四件 羅津四件 圖們三八六件

合同具體化
卄二日에懇談

京城府內 共濟、福德、共立、興業의 四無盡合同은 總督府無盡合同方針에 順應하야 京畿道의 斡旋으로 內部的에는 合同機運을 顯著히 促進케한바 大島京畿道內務部長은 卄二日 午前十一時 京畿道廳에 四無盡代表를 招致하야 合同에關한 懇談을하기로되엇다고한다

朝石原油準備
卄日까지十萬噸

朝鮮石油의 今年度 原油準備는 昨冬以來 連續的으로 한結果 卄日까지 全量十萬噸의 準備가끗나고 六月上旬부터 輸入키로決定하엿는데 輸入原油는 米油인데 그價格은 約四百萬圓이라고

朝鮮新私鐵計畫
◇…最近의增加內容

買收難, 私鐵補助不安으로 沈衰不振이든 朝鮮內의私鐵界도 私鐵補助法의 改正、繼續되는 私鐵買收의 實施에다가 朝鮮內產業界의 躍進이 新私鐵事業振興時代를現出하얏다 即最近의私鐵計畫을보면

一、三陟鐵道=三陟開發에關聯하야 三陟으로서 搬出港(丁羅)에 至하는 區間에新設코저하는것으로 朝鮮電力을 中心으로서 計畫中이다
二、平南鐵道=博川으로부터 南浦에 達할것으로 田川常次郎 齋藤久太郎氏等에依하야 計畫中
三、京春鐵道=京城、春川間의懸案으로 春川有力者間에서 計畫中
四、成中鐵道=朝窒의 新興鐵道를延長하야 咸南高地帶의 富源開發을 目的으로計畫中

經濟界消息

◯京城電=二十七日總會=京電定期株主總會는 卄七日東京丸內工業俱樂部에서 열터인데。株主配當은 年一割据置 또取締役 全部任期滿了에 對하야 改選

株式 議會解散 反騰
商況(廿一日)

前場區區

議會解散의 噴入氣一巡으로 東新 大新等은反戾이엇스나 日產가튼것은 도리어 不勢低落으로 區區한 商狀이엇스니 即 昨後引에 比하야東新 一圓三十錢高인 百五十七圓五十錢, 大新六十錢高인 九十一圓九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三十一圓丁、日產一圓八十錢低인 七十一圓七十錢 東電燈五十八圓五十錢에 各大引, 拓新十八圓五十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反强

後場은 東新百五十七圓七十錢, 日產 七十二圓十錢、大新 九十一圓十錢, 朝新 三十一圓十錢, 鐘新百四十六圓六十錢에 少閑寄後 三時十分議會解散이나 反强之勢

總選擧形勢와
藏相問題注視

議會는 今日再開劈頭解散될모양인데 議會解散은 이미알엇든材料일뿐아니라 昨日에投崩까지잇서 東京短期 東新은百五十五圓九十錢에까지 떠러저 昨年十一月高價百七十八圓에서 二十二圓十錢의下落이엇슴으로 解散日인 今前場은 利喰戾도잇서 百五十七圓臺이엇는데 解散으로一應織材出盡格의 少安定이될지모르지만 今後에重視되는것은 總選擧에 人氣가 集中될것으로서 어데서 得勝할지 政局에變化를招할 念慮가잇는터로서 財界에서 가장 걱정하는것은 高橋老藏相의 心境如何이다。總選擧後의政界分野如何로는 藏相이 或은進退를 決케될지도 모름으로 不安이크다。軍部가무엇이라 하던지 財界가 무엇을要求하던지一切 不關코 氏一流의 健全中正한 財政政策을 遂行는 高橋氏의 退任이 잇다면 今日까지 買든 政策은 輕望이만흠 總選擧前途는 政局보다도 藏相問題如何에 잇다고 보고잇는모양이다

財產利殖之年
卒富期待夢想

東新가튼것은 期待한 大解合이 잇고 一二十二圓餘나 떠러젓슨즉 비록 因果主의 大捕除가되지는안햇다하드래도 低價買가 如何하나는 말도업슨것이아니다 今年 市勢에對하야 如左히 冷靜한觀察을하는사람이잇다。

今年은 景氣回復年이지만 決코 好景氣時代는아니다 從하야 卒富도나올수업다。卒富가 되라고하다가는 도리어 失敗키쉬오해이다。다만堅實히 財産利殖코저 하는사람만이 利益에浴할것이니 그理由는 如左하다。

1、景氣가 健康을 回復할해로서 景氣가 元氣를내서 走出할時代가 아니다。
2、財界基礎가 鞏固해저서지금까지 떠들던 古材料는 勢力이업다。
3、財界方向이 帝國主義强化와景氣回復이라는二線에沿하야 分明히 規定되엇고 政治關係로나 世界情勢로나 容易히 財界의 方向을 變化식히고 財界를 動搖케하기어려웁다。

以上에依하야 景氣回復과 帝國主義强化로 規模擴大運動이 國家的事業中心으로 起해은事實이겟스니 이때문에 財界의 人氣가 强케 되고 人氣株나 人氣的商品이 軌道外로 暴騰되고 如何한事는 難望인즉 이點을 充分히 警戒하고 善處할일이라는말이잇다

今後의國際情勢
前途樂觀不許

軍縮決裂時 高橋藏相은 國防費의急膨脹이업고 從하야 一般的 增稅도 不必要하다말하얏스나 各國特히 英米가 萬若建艦競爭으로써 日本을脅威한다면 어떠할가? 議會解散으로 國防豫算도 前年度踏襲이겟지만 國際關係를보면 極東에잇서서의 今後의關係는 樂觀不許이오 特히 中國에잇서서의日英 日米乃至英米關係는 大쪽緊密複雜을 加케되것으로 萬若英米接近協調가된다면 日本의 立場은 자못不利할것으로 中國을中心으로한 日, 英, 米三國의 國際經濟關係를 重視할必要가잇는터이다。

實物株前場取引

●桑野氏도證券部進出=今回朝取米豆部取引員桑野健治氏가 中心이되어 京城府에明治證券株式會社(資本金二十萬圓四分一拂込)를 設立하고 朝取證券部取引員이되고저 總督府에卄日附로서 申請書를提出하얏다。

▲日滿아루미(三〇) ▲京南鐵道(六〇) ▲東洋拓殖(三〇) ▲日糖新(六〇) ▲鮮鐵(四〇) ▲日滿豆粕(二三〇) ▲鮮滿開拓(二〇) ▲漢城銀行(三〇) (取引高一六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米貨國債는 各各一圓高이오 五分債도 人氣的으로 五錢乃至十錢小縮을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五、三〇
佛貨四分利 一八七、〇〇

期米 實收發表 瓦落

前場瓦落

昨後場阪地三十圓七十三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七十九錢에 一寄場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日本內地米實收高第一次發表가 第二回豫想보다 四萬四千九百石의 增加임을 擇로한 實物이繼出하야 阪地三十一圓五十四錢인 十九丁反落을 擲하고 二十九圓五十六錢인 二十三丁低로 寄附始한後 阪地五十五錢까지 小戾하엿다가 伴하야 一錢으로 反落止揚하얏다가 六十一錢으로 反戾하엿다가 五十六錢의 三番同値로止揚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二十九圓五十七錢에 一丁高로始揚後 節六十三錢으로 小强이고 五節五十九錢에 鈍重이다가 五十七錢에 止揚하다

實收一次發表
四萬餘石增收

爾來硬派는 日本內地米實收高를 二百萬石의 大減收를見할것으로 豫期하고 軟派는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그다지큰減收가업슬이라고豫期하엿든바로서 兩派의暗鬪이 懸隔한差異를生하야 市勢는 全혀五里霧中에잇든바 結局實收高의第一次發表는 北海道外十六縣分이 一千八百三十一萬五千四百十九石으로 前五個年平均收穫高에比하면 百八十三萬二千九百七十五石의減收를示하엿스나 第二回豫想에比하면 도리어四萬四千九百石의增收를示하엿다 그럼으로 市勢는 依然軟態에傾하야 阪仁共히 二十餘丁의 反落을告하엿다 第二次、三次의 發表가

市場六感

株 議會解散脅威로 東新이 百五十五圓臺로 崩코나서 今前場은利喰戾 日產은 도리어 七十一圓臺로밋그러젓다▲東新이 떠러질때는 日產이버티든것이 이제와서는 東新이少戾이나까 日產이 무어저 어째던 市勢는 尙未安定▲今朝入電東京短期東新取組는 依然四十萬九千株臺 踊躍한解合과 暴落에도 四十萬株가 잘깨지지안코 整理가 시원치안코니크일▲觀測에依하야는 東新二十餘圓低이니떠러질만큼 떠러젓다고도 하겟는데 內外環境이라던가 取組關係가 改善되지안코니 딱한 노릇▲整理가어더서 끗날지는 모르나 整理가 끗난後에라도 東新은반드시 雜株好調에 對하야 投機的人氣昂揚이 잇기는 至難視되며 整理가 끗난後實込의되다면 그實込의反動이나期할가한다▲말하자면 昨年末期待든 所謂東新에큰市勢란것은 解消되엇고 消極的强氣 即 實込反動이나바라잔말▲우선 이러케보아두자!

米 日本內地米實收二百萬石減收說은烏有에 歸하고 第一次發表로보아서는 오히려 四萬餘石이나 增加▲그럼으로 市勢는各地共히 俄然二十餘丁의反落을告하엿다 ▲第二次三次의 發表가또何如할지는 몰으나又復增加하는때는 又一段低落을 告할것이오 減收를示하는때는 反히昂騰을 告할모양이나압호로외發表기 또한問題▲硬派는 日九州, 四國地方이 殆히不作이엇슴으로 압호로의 發表는 如間減收가 되다 할지라도그 減收를免치못할이라고한다▲何다지激減을 보지못할것이오增收를見한다할지라도 또한큰差異가업슬모양 ▲그런데市勢는 低落을 一巡하엿다고 할지는 몰으나압호로 暴騰은 當分期待키難한걸▲實收發表를 完了後政府의 買上을 實施하는때는又一段高價를 示할지몰으나 그러지안코는高價難望 ▲그런데實收發表後의 農家의態度가 何如할지몰으나 大體賣惜方針만은 어느時期까지 繼續하지 안홀수업슬것이다 두고보자

硬派의 觀測點
實收發表고買上

日本內地米 收穫 第一次發表를 接한 各地 市場은 第二回 豫想보다 四萬餘石의 增收를 見하고 軟派의 追擊賣와 買方의 追蹤的 買物이 現出하야 一段 瓦落을 告함에 至하엿다 그러나 硬派의 大手側은 主唱하기를 今回 第一次發表는 大概 米作이 良好한 地方을 먼저 發表하엿슴으로 增收를 示하게되엿스나 그러나 第一凶作地인 九州, 四國地方은 第二回 豫想보다 훨신 減收를 告할것임으로 적어도 四五十萬石의 減收는 免치못할것으로 豫測하고 잇스며 又는 實收 發表를 完了한 後에는 宿題의 買上을 實施하기가 十常八九임으로 結局 大勢는 此邊에서 往來하다가 다시 騰途程에 入하게될이라고 한다 果然此間의 低落은 實收樂觀의 如何할지 此가 注目點이나 大體減收의 程度는 第二回豫想인 五千七百五萬餘石보다 一、二十萬石減收此거 아니될이라는說이 濃厚함으로 此에서떠러진다하더라도 深入은期待키難할터이라고 云云 果如何?

堂島前場賣買

◆賣方=桑名投 株式與投 中東側 地場正米側 東京側
◆中東側 櫻井某 地場弱氣株式側 別派

各地正米

京城軟弱
定期의低落을보고 市況이 稍히軟弱하야 氣配 十五錢低인 九仁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續落
强氣的 見解背馳로 實物換賣로 一方產地는 形勢傍觀態度이나 唱은 十五錢崩落인 九仁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五錢

釜山下押
實收高에對한 見解背馳로 定期가 急低落을演하얏슴으로 處分物의 賣物이 入하얏스나 取引이 極히不振하야 市勢二十錢續落인 角ヶ三等二十九圓〇五錢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六錢

群山下走
日本內地米 實收를 弱材料視하고, 買方一齊躊躇함으로 人氣更히 惡化하야 買氣이 全滅하고 停頓氣配로 穀十五錢下落인 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大邱崩落
日本內地 實收의 減少率이 僅少豫想이오 期米緊

木浦反落
外米等의 實物이出現하야 氣配 更히三十錢崩落者 濟州角ヶ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地搬出物이 入하고 期米의氣配를보고 唱은一氣로 二十錢反落인 三等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今日財界 (廿一日)

◆米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物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二六五

永金商會
金銀賣買
京城府水下町(東大門小學校前)
電話光化門二六八九番
地方注文販賣送料要金先

大陸商會
金·白·銀金 賣買
京城府黃金町一丁目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要 金先

朝取取引員
株式 期米
柳來恒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 二六〇一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長 七七二 五二 三八六

金融 (廿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一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豆粕冲價 [illegible]
◆撰粕冲價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廿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廿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廿一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지카고期米 [illegible]